

지면안내



2 공개기구, 단과대, 학과 선거 결과



3 제29대 총학생회 'UP!' 공약이행 성적표



4 서울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내년 본격 시행

제28회
한성문학상

6~8 제28회
한성문학상



9 "꿈의대화" 허한주 기자를 만나다



11 안녕하세요 인디입니다



12 기획-모두의 뉘를

제30대 총학생회 기호2번 '행동' 선거운동본부 당선

경선이었던 이번 선거 결국 단선으로 치러져



▲ 당선된 기호2번 '행동' 선거운동본부의 이종혁 총학생회장 당선자(우)와 유지혜 부총학생회장 당선자(좌)가 '화이팅' 을 외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에 걸쳐 진행된 제30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기호2번 '행동' 선거운동본부의 이종혁(정통 3) 총학생회장 후보와 유지혜(영어영문 2) 부총학생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경선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기호1번 '라디오'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박탈로 결국 단선으로 치러졌다. 선거 결과 총 재적인원 6,821명 중 3,796명의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해 55.65%의 투표율이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총학생회 투표율 중 최고치였다. 그 중 찬성이 2,928명(77.13%), 반대가 656명(17.28%), 무효가 212(5.58%), 오차가 48이었다.

이종혁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올해부터 학생회비가 분리고지 되면서 기존 예산의 40% 미만인 금액으로 공약을 이행해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에 실현가능한 공약을 선정해 이행하겠다고 약속 드렸다. 감사하게도 이제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유지혜 부총학생회장 당선자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표를 허락해 주신 학우분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학우분들과의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행동' 선거운동본부의 공약은 ▲수강신청 장바구니 제도 ▲재수강 학점제한 완화 ▲학점 세이브제 ▲등록금 인하 ▲스마트 학생증 ▲한성대학교 어플리케이션 제작 ▲셔틀버스 운영 확대 및 경로 개선 ▲Wi-Fi 개선 ▲휴게실 환경 개선 ▲공학관 ATM 설치 등이다.

'행동' 선거운동본부의 공약은 낯설지 않다. 새로운 공약들 보다 역대 학

생회에서 한 번쯤 언급되었던 공약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역대 공약이었지만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난 11월 20일 정책토론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금 인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종혁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구체적인 등록금 인하율을 확답드릴 수 없다"며 "등록금은 무조건 강압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노트북, Wi-Fi 확충 등의 공약을 이행하기에 어렵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이종혁 당선자는 지난 2013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했다. 그는 "과하게 잡힌 지출부분을 지적하고 새 예산을 찾아 등록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월금이 적립금으로 쌓이기 전에 추경예산으로 집행해 공약을 이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월금은 평균 20~30억이다. 이월금의 반 정도는 다음 학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유인으로 제공된 '그라지'에 쿠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민우(학생지원팀) 주임은 "저조한 투표를 제고를 위해 후보자등록 전에 계획된 일이었다. 성신여대 등 다른 학교를 참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에는 단선일 경우 투표유인을 계획하지 않으려 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런 후보자 박탈로 단선이 되었지만 이미 준비해왔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총학생회선거에서는 립밤을 중선관위에서 투표유인으로 제공했다. 당시 총 재적인원 6,920명 중 3,661명이 투표해 52.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중선관위, 총학생회 후보자 '라디오' 자격 박탈시켜

'라디오' 선본측 세칙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인정해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30대 총선거가 실시됐다. 이번 선거는 경선으로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지난 11월 22일에 기호1번 '라디오' 선거운동본부(이하 '라디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로부터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결국 총학생회 선거는 단선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지난 11월 22일 중선관위가 발표한 회의결과에 의하면 '라디오'는 누적계 총 경고3회, 주의1회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중선관위는 「선거시행 세칙 제 7장 징계 제26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2회는 경고회해 해당하고, 경고3회 시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는 조항에 따라 총학생회 기호1번 '라디오'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시켰다.

이에 최수민(정시 3) 중선관위원장은 "중선관위를 운영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두었다. 후보들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며 반영하고 원칙대로 하도록 노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라디오' 선본 박은지(무역 3) 위원장은 "세칙을 위반해 경고누적으로 박탈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의 부주의를 인정한다. 박미성 총학생회장 후보를 제외하고는 학생회 경험이었었던 선본원들이 없었다. 세칙을 '금지'라는 단어 위주로 봐 다른 세칙들을 세심하게 보지 못한 것이 경고누적으로 박탈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유세기간 동안 1,000명의 학우분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응답해주신 학우분들이 학교에 애정과 관심이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들을 말해주는 것인데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라디오'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50개의 공약을 내세우며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다른 학교를 사례로 들며 50개의 공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하지만 세칙에 대한 미비한 인지로 유세기간에 후보자 자격이 박탈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았다. 학생들이 학교를 이끌어갈 학생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반면 중선관위는 공고 오류를 인정하고 사퇴한 전 중선관위원장 이후 새로 위임된 최수민 중선관위원장을 필두로 투명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는 행보를 걸었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학생회소식

학생복지위원회 시네마데이 이벤트 모집 11/27~12/5

사령

임 박상희 정기자(무역 1)

제21회 학술정보관 문화행사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연말 행사 "도서관에서 즐기다"

■ 일시: 2013년 12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

■ 장소: 학술정보관 로비

■ 행사: 1. 제3회 독서경진대회 수상 2.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및 다과회
3. 학술정보관 후원 장학금 수여 4. 실내악 앙상블 - 본교 실내악 학생 동아리
5. 잉여도서 판매: 12월 3일(화) ~ 12월 5일(목)
- 기증도서와 복본도서 4,000여권을 지역주민 및 교내 구성원에게 저렴한 가격(권당 500원~1,000원)에 판매합니다.

■ 전시: 학술정보관 문화행사 발자취를 찾아서

■ 이벤트: 행운권 추첨 후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

한성인들이 서로서 얼굴을 마주하며, 달콤한 다과와 차 한 잔을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친밀감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학술정보관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전문 지식을 쌓고, 문화행사를 통해 감수성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술정보관 정미영 차장)

2014 공개기구, 단과대, 학과 선거 결과

공개기구, 단과대 학생회 부결없이 모두 당선

학과 학생회 대부분 건설돼

지난 11월 △공개기구 △단과대 △학과 선거가 치러졌다. 공개기구와 단과대의 선거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었고, 각 학과는 학과 일정에 따라 진행됐다.

공개기구는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업위)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의 다른 선거와 달리 대의원들이 선출한다.

이 중 총대와 졸업위는 단선으로 학복위는 경선으로 치러졌다. 학복위 선거는 84.31%의 투표율 중 61.24%의 득표율을 기록해 기호2번 '한울' 선거운동본부(이영철(산공 3) 정위원장, 정두태(영어영문 2) 부위원장이 당선됐다. 총대는 81.25%의 득표율로 'MADE'인' 선거운동본부(원정호(산공3) 정위원장, 김민지(메디 3) 부의장)가, 졸업위는 80.47%의 득표율로 'SOS' 선거운동본부(김경민(역사문화 3) 정위원장, 박수빈(경영 2) 부위원장이 당선되었다.

경선을 치른 학복위 이영철 정위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모든 학우에게 한 발 다가서는 포근하고 따뜻한 학생복지위원회가 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단과대는 ▲인문대(인대) ▲예술대(예대) ▲공과대(공대)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인대는 61.4%의 투표율 중 58.9%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Soul' 선거운동본부(이민서(영어영문 3) 정학회장, 권관결(영어영문 3) 부학회장)가, 예대는 단대 중 가장 높은 득표율(85.09%)을 기록해 'C&B' 선거운동본부(김백현(인공 3) 정학회장, 바다인(인테리 3) 부학회장)가 당선됐다. 경선으로 진행된 공대는 단과대 중 가장 높은 투표율(62.24%)을 보이며 기호1번 'O.' 선거운동본부(양남철(정시 3) 정학회장, 이정은(정통 2) 부학회장)가

52.4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사회과학대학은 입후보자가 없어 내년 보궐선거로 넘어간다.

학과 학생회 선거 역시 탐구관-진리관-공학관-지선관 등 각 학과 투표소에서 원활하게 투표가 진행됐다.

인문대학의 학과들은 보궐선거 없이 모두 단선으로 치러졌다. 그 중 한국어문학부가 인대 학과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61.4%)을 보여 '한울'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되었고, 영어영문학부의 'FLY-ENG' 선거운동본부가 가장 높은 득표율(88%)을 기록해 당선됐다.

사회과학대학은 경선을 치른 행정학과와 기호1번 '강한'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득표율 53.9%)되었고, 경영학부는 사대 학과 중 가장 높은 투표율(57.32%)을 기록했다. 부동산학과는 91.6%의 득표율을 보이며 여민혁(정학회장 후보), 최성민(부학회장 후보)이 16대 학생회로 당선됐다. 경제학과와 무역학과는 입후보자가 없어 내년 보궐선거로 넘어간다.

예술대학은 패션디자인전공이 66.4%의 투표율 중 86%의 득표율을 기록해 변경진(정학회장 후보), 김민정(부학회장 후보), 남술(부학회장 후보) 학생이 39대 학생회로 당선되었다. 의류패션산업전공, 무용학과, 회화과,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 전공의 선거는 진행되지 않았다.

공과대학은 정보통신공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선거가 끝났다. 산업경영공학과는 공대 중 가장 높은 투표율(66.4%)과 득표율(90.7%)을 기록했다. 경선을 치른 기계시스템공학과는 55.08%의 투표율 중 55.83%의 득표율로 김근용(정학회장 3), 임채승(부학회장 2) 후보가 당선됐다.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학과	정·부	선거본부	이름	학년	단선/경선	투표율/득표율
인문대						
한국어문학부	정학회장	한울	한건희	3	단선	61.4%/76.2%
	부학회장		정동훈	2		
	부학회장		박민지	1		
영어영문학부	정학회장	FLY-ENG	김민지	2	단선	57.7%/88%
	부학회장		박재희	2		
	부학회장		이상민	2		
역사문화학부	정학회장	응답하라 2014	황진원	3	단선	61.3%/72.5%
	부학회장		박해진	2		
	부학회장		박찬영	1		
지식정보학부	정학회장	지樂(樂)	권해진	3	단선	56%/87%
	부학회장		정다솜	2		
사회과학대						
경영학부	정학회장	-	김성협	2	단선	57.32%/74.7%
	부학회장		김광현	1		
경제학과					보궐	
무역학과					보궐	
행정학과	정학회장	강한	시민창	3	경선	52.46%/53.9%
	부학회장		이윤표	1		
부동산학과	정학회장	-	여민혁	3	단선	50.5%/91.6%
	부학회장		최성민	1		
예술대						
패션디자인전공	정학회장	-	변경진	3	단선	66.4%/86%
	부학회장		김민정	1		
	부학회장		남술	1		
의류패션산업전공					추후 일정 진행	
무용학과					추후 일정 진행	
회화과					추후 일정 진행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정학회장	-	정만우	2	단선	내정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					추후 일정 진행	
전공					-	
인테리어디자인전공					-	
공과대						
멀티미디어공학과	정학회장	-	유재현	1	단선	59%/89.8%
	부학회장		김수민	1		
컴퓨터공학과	정학회장	-	최치현	2	단선	52%/81%
	부학회장		이소라	1		
정보통신공학과					-	
정보시스템공학과	정학회장	-	이한모	3	단선	56.1%/89.79%
	부학회장		김영환	2		
	부학회장		박송희	1		
산업경영공학과	정학회장	-	지준영	2	단선	66.4%/90.7%
	부학회장		위준범	1		
기계시스템공학과	정학회장	-	김근용	3	경선	55.08%/55.83%
	부학회장		임채승	2		

▲ 각 학과 학생회 선거결과



▲ 두 번째 총장공로상을 수상한 학생들의 모습

두 번째 총장공로상 주인공들

지난 '한성을 빛낸 학생, 총장공로상' 시상식(10월 10일)에 이어 11월 21일 두 번째 '한성을 빛낸 학생 총장공로상' 시상식이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첫 번째 총장공로상 시상식은 세계대회, 전국대회, 관세사 합격 등 20명의 학생들이 총장공로상을 수상했고, 이번에는 전국 무용 콩쿨, 단원미술제, 광고 및 UCC 공모전 등 전국 주요 대회에서 진가를 발휘한 13명의 학생들이 '총장공로상'을 수상했다.

수상내역은 ▲용기(무용 11) '제8회 전국 무용 콩쿨' 금상 ▲박세은(인테리어 12) '2013 칼스버그 대학생 광고 공모전' 은상 ▲차미진(시각영상 10) '롯데카드 커뮤니케이션 공모전' 우수상 ▲김경희(회화 11) '2013년 단원미술제' 우수상 ▲한현재(멀티 09), 김성률(컴공09), 전현제(정통 12) '제7회 서울시랑공모전' UCC부분 우수상 ▲김기연(회화 12) '제15회 대한민국 강남미술대전' 특선 ▲한나연(인공 10) '2013 한국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 콘테스트' 장려상 ▲김상(시각영상 11) '112 허위신고 근절 문화대전' 3위 ▲최희승(정통 05) 'KBS 1:100 퀴즈 프로그램' 1등 등이다.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간추린소식

수시 2차 경쟁률 4.09:1을 기록해

지난 11월 15일 수시 2차 경쟁률이 발표됐다. 총 293명 모집에 1,199명이 지원해 4.0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시 2차에서는 학생부우수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배려대상자, (정원 외)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등 모집했다. 그 중 학생부우수자 전형이 1,049명이 지원해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했고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이 5.07: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원 외)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은 34명을 모집했지만 13명이 지원해 모집인원이 미달됐다.

학생부우수자 전형 중에는 경영학부(주간)가 9.07: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배려대상자 전형은 무역학과(주간)가 8.00: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오는 6일 수시 2차 합격자가 발표된다.

제7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열려



▲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민식 학생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지난 11월 21일 미래관 DLC에서 제7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총 24명이 예선 심사를 거쳐 11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회의 주제는 두 가지로 첫 번째 주제는 '최고 대두되는 힐링(유/Healing)이라는 사

회현상을 분석하고, 사회 및 개인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적절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꽃보다 할배'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사회의 단면을 분석한 후에, 이러한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노인문제와 연계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노인문제보다 힐링을 주제로 선택한 참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원제(사고와 표현) 연구원의 진행에 따라 대회가 시작됐다. 참가자들의 발표순서는 대회 시작 30분전에 발표자들이 모여 제비뽑기로 결정됐다. 발표는 7분 내외로 진행됐으며, 발표 후 5분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및 평가가 이어졌다.

대회가 끝난 후 이상혁(사고와 표현) 전임교수는 "학생들의 수준이 작년보다 많이 높아졌고 내년에는 학생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쉬운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며 "내년부터는 대회 진행 전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공모할 수 있다.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는 상금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은 11월 19일 본교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총장명예상장 및 상금이 수여됐고 수상내역은 최우수상(1명), 우수상(4명), 장려상(6명)이 있다. 이번 대회의 최우수상자인 김민식(무역 2) 학생은 힐링의 부정적인 면을 주제로 다루었다. 힐링은 일시적 위안이고 상업적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며 내면의 힘을 기르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예산지 못하게 상을 받게 되어 놀람과 기쁘다"며 "평소 회의실과 강의실에서 발표를 해오다가 조명이 있는 무대에서 발표해 보니 긴장이 더 되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청중들을 바라보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PPT 형식과 발표력보다는 콘텐츠를 중요시했으며 주제에 대해 많이 조사하고 살펴봤다"고 수상 요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박상희 기자 pshy13@hansung.ac.kr

'2013년 한성대학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돼



▲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들의 모습

지난 11월 20일 미래관 DLC에서 '2013년 제4회 한성대학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후원했다. 대회는 참가한 학생들이 창업아이템에 대

해 5분간 발표하고 심사위원이 5분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학내 창업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 상상력과 모험

심이 풍부한 젊은 예비기업가를 창조경제형 청년창업가로 육성하고자 개최됐다.

정순선(산학협력단) 과장은 "매 대회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우수해지는 것 같다. 내년 대회가 더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혁신 아이디어'부문이 신설되었다"고 말했다. '혁신 아이디어'부문은 상상력과 모험심을 사업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집했고 '창업'부문은 사업아이디어에 창업 실행계획이 포함된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이번 대회는 '혁신 아이디어'부문 5팀, '창업'부문 2팀으로 총 14팀이 지원했으며 작년에 비해 9배 증가했다.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으로 수상이 진행됐다. 대상은 'Easy Tipping, TIPPIN'을 아이디어로 발표한 'TIP A PEOPLE'이 거머쥐었다. 'TIP A PEOPLE'은 김윤성(경영 4), 오은식(경영 4), 임용현(경영 4), 김지혜(시각영상 4), 강민기(경영 3)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서

울시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 5기로 활동 중이며 발표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김윤성 학생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일 년 안에 TIPPIN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TIPPIN은 신발 끈이 길어 자를 경우 지지부진해지는 신발 끈의 끝 쪽을 서로 연결해 정리해주는 제품이다.

김진환(산학협력단) 부단장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준비가 철저되어야만 한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 열정 역시 필요하다. 앞으로 참가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평했다.

수상팀에게는 정부기관 주최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참가 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캠프 지원, 2014년 정부 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등이 특전으로 주어진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한국어과정 겨울학기 입학식 열려



▲ 지난 11월 18일 미래관 DLC에서 한국어과정 2013년도 겨울학기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번 입학식에는 총 47명의 학생들이 입학했으며 신입생은 5명이다. 입학식에서는 한국어과정 소개 및 선생님들과의 인사가 있었으며 한국어문학부 밴드패가 축하공연을 했다. 입학식이 끝난 후 학생들은 교실로 이동해 수업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동정란

김창홍(한국어문학부) 교수 김 교수는 저서 도서출판 월인에서 『고구려의 시와 노래』를 출간했다.

이정숙(한국어문학부) 교수 이 교수는 지난 10월 25일 원주 토지문화관 '박경리 문학제'에서 사회를 담당했다.

이정숙(한국어문학부) 교수 이 교수는 지난 11월 16일 가천대에서 한국 현대소설학회(회장) 제44회 학술대회를 '한국 현대소설과 만주리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형원(행정학과) 교수 이 교수는 저서 『썩약』이 문화부 우수교양도서로 지정됐다.

노광현(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노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이 제9회 대학생프로젝트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강상욱(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강 교수는 기계공학분야 SCI급 국제 Journal인 'Advances in Mechanical Engineering'에서 지난 11월부터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제29대 총학생회 'UP! Ur Partner' 공약 이행평가



우리의 파트너였던 제29대 총학생회 UP! 한성을 얼마나 UP시켰는가?

▲ 제29대 총학생회 UP!이 자신들의 공약 이행을 평가하고 있다.

제30대 총학생회가 건설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제29대 총학생회 UP의 임기가 끝났다. 새로운 총학생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난 총학생회는 얼마나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이에 많은 학우들이 궁금해 할 공약이행을 살펴보기 위해 제29대 총학생회 'Ur Partner'의 김진호(컴공 4) 총학생회장과 이현정(경영 4) 부학생회장을 한성대 신문사가 만나 공약 성적표를 작성했다.

등록금 0.2% 인하, 시설확충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체감하기는 어려움

등록금과 환원율을 높이겠다는 그들의 첫 번째 공약이행을 제일 먼저 평가했다.

2013년도 등록금의 경우 0.2%로 소폭인하됐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 이사회와 학생회, 그리고 학교 측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결과이다. 총 5번의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결정되었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소폭인하에 실망한 학생들이 다수였다.

이에 김진호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하율을 주장했으나 우리학교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점을 감안, 교내 국가장학금 유치를 위해서 소폭 인하로 결정되었던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환원율의 경우 교내 와이파이 확충 등 여러 측면에서 교내 서비스와 교내 시설을 확충 및 개선하는 여러 분야의 노력이 있었다. 이에 총학은 "아직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앞으로도 총학생회에서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등록금 예결산안 & 실험 실습비 내역 공개로 청렴도 UP

학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록금 실습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총학은 "이러한 등록금 예결산안의 경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학우분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부분에서 총학생회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실험 실습비 내역 공개의 경우 "예술대 학생회와 같은 공약이며 학생지원팀을 통해 학기 초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노력을 통해 과내에서 공개되는 과가 있었다. 하지만 공개되지 않는 과가 있어 추가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이전과 다름없어

'UP!'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에 대해 김진호 총학생회장은 "제일 아쉬운 부분이다"고 운을 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지만, 당시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해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겨울방학에 진행되다 보니 의견 수렴이 어려울 것이 사실"이라며 "이년에 당선된 총학에게 이 부분을 잘 인수인계해 학우분들의 의견을 꼭 반영하고 학우분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등심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사회와의 간담회 추진, 앞으로의 초석 다져놓아

총학은 "이사회와 학교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와 학생간의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당시 학교 예산 중 총학생회 측에서는 이사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학교는 이를 받아들였고 추진하기만 하던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간담회가 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이다 보니 시일이 계속 미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총학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조만간 이사회와 대학본부 그리고 학생들 간의 간담회가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의평가제도 개선 건의, 내년 혹은 내후년에 가능할 것

강의평가를 학생들에게 공개해 학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공약이다. 또한 중간고사 후 중간 평가를 공개해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총학은 "학사지원팀 및 학생지원팀 미팅을 통해 강의평가제도 개선 및 핵심교양 증설 및 수간인원 증설에 대한 건의를 한 상태이다"며 "현재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보니 바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뒤이어 "빠르면 내년 혹은 내후년에 가능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강의평가 제도 개선 및 핵심교양, 수간인원 증설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대학본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약이행 결과

공약	이행 결과
2013년도 등록금 인하율 & 환원율 UP	등록금 0.2% 인하, 시설확충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체감하기는 어려움
등록금 예결산안 & 실험실습비 내역 공개/청렴도 UP	등록금 예결산안 홈페이지에 게재해 청렴도 UP, 하지만 학우들에게 홍보 부족
등록금 심의위원회 학우분들의 참여도 UP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했지만,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함
10억 비리에 대한 책임자 규명과 사과/정확한 환수계획 수립	당시 제29대 총학생회 선거유세 기간 중 해결됨
재단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위한 학생들과 이사회와의 간담회 추진	이사회와의 간담회 추진, 앞으로의 초석 다져놓음
총학생회 홈페이지개설/커뮤니티 공간 UP	교내 홈페이지를 이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아
총학생회 공약 이행 현황 및 공약이행 성적표 UP /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내역 정기적 게재 및 공개 UP	학우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음
총장님 & 학우분들 간의 간담회 추진 UP	총장님과의 미팅을 통해 간담회 추진 초석을 다져놓음
강의평가제도 개선 교육수준 UP/핵심공약 증설 및 핵심교양 수강인원 UP	학사지원팀 및 학생지원팀에 건의, 내년 혹은 내후년에 가능할 것
우리 손으로 만드는 장학금 UP	추진했지만 실현하지 못함
세미나실/학생휴게실 UP	현재 공간 부족으로 증축 불가능 하지만 중합관 신속 시 증축될 것
서틀버스 운행개선 & 정문 정류장 신설 안전 UP	학생들의 통학이 많은 동대문이 아닌 보문역 시범운행에 그침

별점(다섯개 만점)



세미나실&학생휴게실 증축 공간이 부족, 중합관 증축 시 가능해

공간조정 소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와 학생지원팀간의 미팅을 했지만 현재 학교에는 세미나실 및 학생휴게실을 증축하기에는 공

간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총학은 "공사 예정인 중합관 증축 시 2층 및 3층에 대거 학생들을 위한 공간(세미나실 및 학생휴게실)이 신설 될 것으로 학교 측의 확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서틀버스 운행 개선 시범운행에 그쳐

서틀버스 운행개선의 경우 총무인사팀 및 학생지원팀을 통한 건의 하에 보문역으로 시범운행을 진행했다. 물론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는 동대문 쪽으로 시범운행을 하고자 했으나 서틀버스를 추가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유류비 및 인건비 버스구매비용 등 여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보문역 시범운행 후에 대학본부 측에 추가 논의 후 점진적으로 서틀버스 운행개선을 하는 것으로 진행중이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장학금, 실현하지 못해

학생, 교수, 교직원들에게 모금을 받아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제도였다. 결론만 말하자면 이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상시 모금을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대동제 당시 창의관 앞 총학 부스에서 게임을 진행하고 게임에서 지면 벌칙금으로 오백 원을 기부 받았는데, 이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벌칙금을 받는 것을 중단했다. 총학은 "자발적인 모금을 진행하지 않았고 게임 벌칙금으로 장학금을 만들기도 역부족이었기에 소액으로 모인 벌칙금액은 의정부 적십자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약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학생회의 공약 이행에 있어서 학교 구성원의 참여 역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학우분들과 학생회 소통 가장 부족했던 부분으로 꼽아

김진호 총학생회장은 "학우분들 소통에 대해서 가장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11월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많은 행사와 많은 업무를 수행했다. 대동제나 낙산제전과 같이 학우분들께서 많이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예상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 냈지만 학생회로서 학우들의 복지개선 부분에 있어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에서 매우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학우들과의 소통"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총학생회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회에서 내놓은 공약이다. 김진호 총학생회장은 "이러한 학우들과의 소통, 즉 학우들과의 연계를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물론 총학생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학우들 역시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관심을 가져주어야 둘 간의 소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중했다 VS 지지부진했다 평 갈리는 시국선언에 대한 대처

지난여름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뜨거운 감자였다. 이에 우리학교 낙산의 메아리에도 '우리학교는 시국선언을 언제하나요?'라는 글들이 올라왔고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총학생회 'UP'은 먼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한 후 시국선언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공지했고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모았다.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전체학우 중 총 478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결과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총 478명 중 57%로 과반수를 넘었지만 시국선언을 추진하지 않았다. 여름방학이어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점과 설문에 응한 일부의 의견으로 한성대 전체를 대표해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시국선언 찬성 측의 응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애초에 시국선언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반면 신중한 선택이었다며 그들의 대처를 지지한 측도 있었다.

제 점수는요? 별점 두 개 반입니다.

김진호 총학생회장과 이현정 부학생회장은 지난 1년간 자신들의 행보에 별점 5개 만점에 2.5개를 줬다. 그 이유를 "대동제, 낙산제전의 경우 사고 없이 성황리에 진행했지만 학우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그 노력이 미비했다"며 "그렇기에 별점 2.5점을 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공약들이 실천단계 혹은 시작 단계에 놓여있다"며 "학우분들이 체감할만한 공약 이행이 없었다는 점 역시 아쉬웠다"고 말했다.

제29대 총학생회 UP은 공약이행 평가에 있어서 숨김이 없었다. 공약 중 하나였던 공약이행 성적표를 실현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하며 성실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1년간 우리의 파트너였던 제29대 총학생회 UP 김진호 총학생회장과 이현정 부학생회장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서울시 여성안심귀가서비스 12월 말 시범운영 종료, 내년부터 본사업 시작



▲ 5월 27일 치러진 서울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발대식이다.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요즘 뉴스를 보면 각종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만 5,693건이던 성범죄 수는 2012년 1만 9,670건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25%에 달했다.

상황이 이러니 늦은 밤, 여성 혼자 귀가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 되어버렸다.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너무 쉽기 때문이다. 작년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던 오원준 토막살인 사건도 퇴근 후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노린 흉악범죄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한 것이 바로 '여성안심귀가서비스'이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란 밤에 여성이 혼자 귀가할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이하 스카우트) 2-3명이 집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이다.

이용시간은 평일 밤 10부터 새벽 1시까지이며 이용 30분전 120 다산콜센터에 미리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스카우트들은 서비스요청이 없을 시에는 주변지역을 순찰한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올해 5월 말부터 서울시 25개구 중 15개의 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1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호응이 좋아 1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종료를 앞둔 시범운영, 그동안의 이용률과 효과는 어땠나

여성안심귀가서비스의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시작 4개월 만에 이용건수 11,000여 건을 돌파했다. 9월 마지막 주에는 이용건수가 1,900여건에 달했다. 또한 스카우트들이 치안이 취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3만여 건이 넘게 순찰해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를 높였다.

지난 7월에는 여천역 부근에서 여대생 성폭행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스카우트들이 공원 순찰 중 발견해 안전하게 귀가시킨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주말과 공휴일에는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아

사실 밤늦게 귀가할 일은 휴일에 더 잦은 편이다. 하지만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박종관(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팀)주무관은 "주말과 같은 휴일에도 스카우트 분들이 일을 하면 노동법상 정규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특근을 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특근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는 평상시 근무시간의 두 배에 달한다.

그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현재 스카우트 인원의 80%정도 밖에 뽑지 못했을 것이다. 서비스를 시행한 목적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모집하는 것을 우선시했다"고 전했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여성안전을 위해 시행된 사업이기도 하지만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스카우트는 4대 보험 본인부담금 및 야간수당을 포함해 월 62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스카우트의 평균 연령대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 경력단절 세대에겐 신규 일자리 창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카우트들의 귀갓길은 안전한가

스카우트의 퇴근시간은 새벽 1시이다. 스카우트의 70% 이상이 여성인데 이틀 또한 퇴근 후 개별 귀가를 해야한다. 통상 남자 스카우트 대원이 여자대원들을 데려다 주고 퇴근하긴 하지만, 자차구 스카우트 중 남자대원이 없거나 개인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여성 스카우트

혼자 늦은 밤에 귀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정착 안심귀가를 하지 못하는 셈이다.

스카우트가 신청을 하면 소속 지구대에서 순찰차로 데려다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지구대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또한 스카우트가 미안한 마음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스카우트 구은희(54)씨는 "우리 조같은 경우, 조장님이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셔서 퇴근길에 조원들을 집까지 태워 주신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밤에 귀갓길이 무서운 것이 사실이다. 지구대에서 순찰차로 귀가 시켜준다고 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미안한 마음에 신청을 못했"고 전했다.

해당 구청이나 지구대에서 의무적으로 스카우트들의 귀갓길을 책임져 주는 등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자가 직접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받아보았다.

한성대학교가 위치한 성북구의 구청에서 본인 집까지 기자가 직접 서비스를 받아보았다. 약속장소인 성북구청 앞에서 기다리니 노란 모자와 조끼를 착용한 스카우트들이 나타났다. 조장을 맡고있는 지태섭(51)씨와 구은희(54)씨, 박근숙(54)씨였다. 다음은 동행 중 기자와 지태섭 씨가 나눈 대화이다.

기자: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밤길을 다니시는 만큼 위험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태섭 씨: 저희 조는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은 없었지만, 6월쯤에 있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순찰을 들고 있던 중 술에 취한 남자가 여성인 두 조원들에게 희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금방 저지하긴 했으나 조에 여자밖에 없었더라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기자: 아하 그렇군요. 서비스를 수행하는 실무자로서 개선해야한다고 느낀 점이 있나요? 호신용품이 필요하단 건지.

지태섭 씨: 저는 오히려 호신용품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스카우트들이 여성인데 위급상황시 범죄자에게 빼앗기면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선점은 한 조가 여자대원들만 구성될 경우 늦은 밤에 이동하기에는 위험하므로, 한 조에 한 명씩은 남자대원이 있으면 합니다.

기자: 근무하신지 약 6개월이 다되어 가는 만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태섭 씨: 지난번 한 여성이 서비스를 신청해서 귀가에 동행했습니다. 빌라의 1층에 살던 분이었는데 그 분 말씀이 언제가부터 귀가할 때마다 3층에서 누군가 자주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사시는 빌라 안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이런 서비스가 있어 너무 안심된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 이 일에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앞서 설명했듯이,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시범사업은 12월 말에 종료된다. 박종관 주무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15개 구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본사업은 서울시 전체 구에서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홍훈한 세상, 여성의 밤길 걱정을 덜어주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 훌륭한 취지로 시작한 사업만큼 시범운영에서 발견된 한계점들을 보완해 서울시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되길 바란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 스카우트들이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끝낸 후 순찰을 가고 있다.

지구촌 이슈

미국, 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서거 50주년 기념 추모행렬 이어져

지난 11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JFK)의 서거 50주년을 기리는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케네디 전 대통령 내외의 묘가 있는 버지니아 주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 내외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잇따랐다. 또한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사건이 일어났던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도 처음으로 공식 추모기념식이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케네디 전 대통령의 카 퍼레이드가 시작됐던 오전 11시 30분에 막을 열었다. 이어서 마이클 롤링스 댈러스 시장의 연설과 공군의 추모기념비행이 진행되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22일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추모일'로 지정하도록 특별 포고령을 내렸다. 또한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내 공공건물과 외국 공관 등에 성조기를 조기로 게양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삶은 비극적이고 짧게 끝났지만 그의 비전은 세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며 "그의 도전 정신을 되새기며 오늘날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자"고 포고문을 내기도 했다.

캐나다 토론토, 세계에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뽑혀

국제 도시문화 운동단체인 유스풀 시티(Useful City)는 세계 대도시를 대상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사했다. 조사는 15~29세 청년층을 위한 취업의 기회보장과 임금 수준 등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유스풀 시티는 여러 가지 기준을 산출해 '2014 청년 도시 지수'를 측정했다. 그 결과 캐나다의 토론토가 1위로 선정됐다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토론토를 이어 2위는 독일의 베를린, 3위는 미국의 뉴욕이 각각 차지했다. 뒤를 이어 미국의 댈러스와 프랑스의 파리, 미국의 시카고, 영국의 런던이 4~7위에 올랐다. 2014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브라질의 상파울루는 17위에 선정되었고 상하이는 20위를 차지하며 중국의 도시들 중 유일하게 2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은 미국 LA와 일본 도쿄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10위로 선정되었다.

중국, 칭다오 도심서 송유관 폭발해 인명피해 발생

지난 11월 22일(현지시간)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송유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칭다오시 남부 황다오 개발구에 위치한 리동화화단지 중국 석유화학공장에서 일어났다. 이로 인해 최소 35명의 사망자와 1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부상자들의 상태가 심각해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칭다오시 관계당국은 "22일 새벽 3시경 중국석유화학공장의 송유관 균열로 원유 누출이 발생해 보수작업이 진행되었다. 사고는 작업을 하던 중 오전 10시 30분 쯤 누출된 원유에 불이 붙으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고가 일어난 송유관은 황다오에서 웨이팡시를 잇는 총 176km 길이의 송유관의 일부로 연간 1,500만 톤의 석유를 수송해왔다. 사고 당시 송유관이 지나가는 도로가 깊게 파이고 그 주변의 차량들이 뒤집어지는 등 폭발 위력이 상당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진술이다.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현장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칭다오시는 "이번 사건은 테러와 관계없는 단순한 폭발 사고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때 그 사건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일정액 납부되는 국민연금 시대

1988년 1월 1일자로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월급에서 일정액이 국민연금으로 납부되기 시작했다.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 실시 전 국민연금법이 이미 제정되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밤에 따라 매달 회사는 회사대로, 근로자는 근로자 몫으로 회사가 대신해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납부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노후 삶의 질에 눈뜨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으나 마침내 시행되었다.

사실 이 때는 국민연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 연금이라는 단어도 생소했다. 사실 연금 타는 사람이 없고, 붓기만 하고, 혹시 정치적으로 변화라도 있어 근로자와 회사가 한푼 두푼 모아놓은 뭉치돈이 어디로 갈 지는, 혹시 만의 하나라도 날리는 경우는 누구에게 하소연할지 모르는 상태였다. 그러나 안전장치가 있었다. 회사를 퇴직하면 그동안 부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연금을 월급에서 떼어가고 퇴직할 때 타면 되니까 하고 생각했

다. 막상 퇴직할 때 그동안 부은 돈을 퇴직금과 함께 타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십년 후의 일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연금수급자가 2008년 나왔다. 20년 동안 국민이 모이준 국민연금 기금은 세계 순위가 오를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2013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었고, 한 방송에서 국민연금 연구자가 연금 이십만 원을 기대하고 사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라는 발언을 하여 노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살면서 최하 십년 동안 국민연금 꼬박꼬박 납부한 뒤 65세에는 자신이 낸 연금을 매달 받으며 생활을 하면 이상적이다. 단, 자식이 카페를 차린다고 몇 억씩 날리거나, 남편이 이름을 빌려주고 보증 선 친척이 망했거나, 아니면 40세가 정년인 회사에 퇴직 후 자영업이라도 하게 되면 연금을 부을 돈도 없고 탈 수도 없다. 연금이 아니라도 각종 세금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의료보험 납부 등이 밀리게 되고 빚쟁

이가 되기도 한다. 자기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다.

나이 육십이 넘으면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새벽에 리어카를 끌고 나와 폐지를 모아 팔아 하루 2천원을 버는 일이라도 한다. 강풀의 만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는 리어카에다 할머니를 모아 팔며 사는 리어카 할머니 송이 뿐 할머니가 여자주인공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영화, 드라마, 연극으로까지 나온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왜 사람들이 리어카 할머니가 주인공인 만화에 열광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65세 되면 십 만원 줄까, 이십 만원 줄까 하면서 정치가들은 노인을 모욕하게 된다. 낡은 자식이 있어 못 받는다 면 차라리 독신으로 결혼 안하고 살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퇴직할 때 타서 다 써버렸으나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오십 세에 십 만원씩 십년을 부으며 육십이 되면 매달 이십만씩 받아 그래도 굶어죽지는 않겠다고 안심한 한 순간, 정치가들이 나이가 든 분들

에게는 무조건 이십 만원씩 준다고 나섰다. 십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국민연금 탈퇴가 시작되었다. 소위 임의가입자들과 하네데 전업주부들이 많다고 한다. 낡으나 안 낡으나 주는 연금이라는 인상을 정치가들이 준 것이다. 연금문제는 보사 부장관의 무덤이라 한다. 민감한 사안이고 매년 정치적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노인을 위한 나라를 없다고 하더라도, 노인을 모욕하는 나라도 없다. 노인 한 표를 생각하고 열이면 열까만 염두에 두는 정치가들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기 연금이나 생각하는 국회의원, 국민세금으로 자신의 연금을 지키는 공무원 등도 마찬가지이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대학생에게 국민연금 연구 장학금을 주고 연구시켜 미래의 노인인 국민을 안심시켰으면 한다.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는 국민에게 생계비를 일정액 나라이서 주면서 이렇게 정치적 소란을 피우는 것은 참으로 천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칼럼니스트 우혜진)

낙산만평

안의영 (애니 4)





교단에서

김창룡 (한국어문학부 교수)

노천명은 일찍이 <사슴>이란 시 안에서 '관(冠)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구나 보다고 노래한 적이 있다. 『이슈우화집』 속의 한 사슴도 물속에 비친 그림자 속 자신의 관이 아름답다고 여겨 자랑 삼고, 가느다란 다리에 대해서는 보기 싫다면서 불만을 품었다. 어느 날 사슴은 사자를 보고 재빠르게 도망가다가 그만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 잡히고 말았다. 불쌍한 사슴은 죽어가면서, '지금까지 육만 하던 다리 덕에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 삼던 뿔 때문에 이 꼴이 되어 버렸구나!' 이렇게 한탄했다고 한다. 여기서 사슴의 뿔과 다리는 각각 개인의 장점과 단점을 암시적으로 나타낸 뜻일 수 있다. 혹은 사슴의 뿔은 사랑이나 열망하여 마지않는 권력, 돈, 미모, 웅장한 키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다고 믿고 추구해 왔던 것이 문득 기존 사슴의 관념을 깨고 오히려 일약 무가치 혹은 반가치(反價値)로 돌아서는 역설의 논리를 보게 된다. 수많은 우언이 담겨 있는 『장자(莊子)』 책

이솝과 장자

에도 이와 방불한 이야기가 있다. 장자(莊子)가 산속을 가다가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를 보았다. 나무꾼이 그 옆에 있으면서도 그 나무를 베지 않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으니 쓸모가 없어서라고 했다. 이때 장자가 말하였다. "이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리는 것이다." 장자가 산에서 내려와 친구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친구는 반가운 마음에 하인더러 거위를 잡아 요리하라고 시켰다. 하인이 묻기를, "한 놈은 잘 울고 한 놈은 울 줄을 모르는데 어느 놈을 잡을까요?"하자 주인이, "울 줄 모르는 놈을 잡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제자가 스승인 장자에게, "어제 산속의 나무는 쓸모가 없어 천수를 다했는데, 오늘의 거위는 쓸모가 없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처신하시려는지요?"라고 물었다. 이제 저 나무나 거위의 경우가 문득 인간한테조차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책 속에 이런 얘기는 찾을수록 많다. 천하일색인 모자와 서시를 사람들은 모두 호감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물고기는 그들을 보면 무서워서 물

속깊이 도망가고 새들은 놀라 하늘 높이 날아가며 고라니와 사슴들은 그를 보면 허둥지둥 달아나니, 누가 쉽게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 단정할 수 있는가 하고 설파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 미와 추 같은 개념과 기성 가치들이 저 대우주와 피안의 관점에서 보면 주관적 편협한 것일 수도 있다는 발상의 전환인 것이다. 기원전 6세기의 그리스인 이솝과 기원전 3-4세기에 활약한 중국의 장자는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살며 전혀 교류가 없었음에도 어쩔 때마다 우회하는 방식을 통해 이토록 기발하고 놀라운 역발상의 합치를 나타냈는지 신기롭기만 하다. 동시에 지위의 높고 낮음, 돈의 많고 적음, 얼굴의 잘생기고 못생김, 키의 크고 작음, 머리의 좋고 나쁨 같은 비교 안에서 사람들이 품는 희비와 흥·불행의 감정이 과연 모든 경우에 절대명제인가? 거듭 사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솝과 장자의 이야기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 사 설 ·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자

우리는 항상 구조조정과 혁신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우리는 구조조정과 혁신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구조조정 압력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적인 측면이 강하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편하게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조조정과 혁신을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자세를 제대로 정립해야 할 때이다.

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자체적인 경쟁력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교는 학교의 차원에서, 단과대학과 학부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경쟁력을 점검해야 한다. 교수와 학생들도 스스로의 경쟁력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봐도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하더라도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경쟁력은 우선적으로 취업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은 아픔을 동반할 가능성이 많다. 구조조정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자원을 재배치하는 과정이다.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 더 많은 자원을 배치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에는 자원을 축소시켜서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자원의 투입이 증가하는 부문에는 고통이 적을 것이나, 자원의 축소를 경험하는 부문에는 그에 따른 아픔이 동반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우선 고통을 감내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대학은 무엇인가. 대학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취업이라는 형태로 표현될 것이다. 대학생들의 취업은 대학의 경쟁력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학교와 학생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해야 하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취업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높여주어야 한다.

구조조정과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비전과 목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아가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리더십의 과제이다. 항해하는 배의 선장의 제일의 과제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풍랑과 고난을 만나겠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안전한 육지에 다다를 것이라는 믿음

경제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어떻게 최적화를 할 것인가는 하는 것은 리더십의 과제이다. 항해하는 배의 선장의 제일의 과제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풍랑과 고난을 만나겠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안전한 육지에 다다를 것이라는 믿음



기자수첩

현정은 기자 (무역 2)

지난 11월 2일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자유로 가요제'편이 방송됐다. 가요제는 '무한도전'에서 2년마다 진행하며 발표된 음원들은 늘 음원차트의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번 역시 음원들은 음원차트의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 대부분의 음원차트 1위를 기록한 '1 GOT C(아가씨)'가 표절논란에 휩싸였다. 네티즌들은 '1 GOT C(아가씨)'가 네덜란드의 가수 카로 에메랄드의 '리퀴드 런치(Liquid Lunch)'와 '유 돈 러브 미(You Don't Love Me)'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제기했다. 이 곡을 작곡한 프리머리는 현재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작곡가 중 하나여서 논란은 쉽사리 잠잠해지지 않았다. 논란이 된 곡은 '1 GOT C(아가씨)' 외에도

박지윤의 '미스터리'와 프리머리의 'Happy Ending' 등 총 6곡이 더 논란이 되었다. 지난 11월 7일 카로 에메랄드의 제작자이자 원곡자인 데이비드 슈얼러스가 직접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아메비컬렉트 공식 트위터로 '표절로 생각한다'는 직설적인 트윗을 보낸 것이다. 결국 프리머리는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며 음원 판매는 중단되었다. 사실 가요계의 표절 논란은 오랫동안 존재했다. 올 한해에도 아이유의 '분홍신', 배치의 '눈물사위', 로이킴의 '봄봄봄' 등 여러 곡에서 표절의혹이 제기되었다. 가요계에 표절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에 엄격한 잣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표절에 대한 처벌은 솥방망이식이다. 또한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낮

다. 어딜 가나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가요계의 표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작곡자들의 양심도 필요하지만 표절에 대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창작은 어려운 것이다. 늘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기에는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곡들을 참고하기도 한다. 어떠한 곡을 듣고 곡을 쓰기 시작하면 들었던 곡과 유사한 곡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머리속에 들었던 곡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창작의 어머니는 모방'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비슷한 속에 새로운 것이 있어야만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가요계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표절로 물든 2013년 가요계

오늘은 3일이나 3번 나와



낙산에 올라

이회상 학생 (부동산 4)

사람이 얼마 벅속으로부터 나올 때 가장 먼저 받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름은 죽어서도 영원합니다. 이처럼 이름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자 궁극적인 나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타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진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짓는 행위로 보는 만큼 '이름 부르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창시절, 자신의 이름이 점차 희미해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 오늘 3일이나 3번 나와서 문제 풀어봐' 선생님은 우리를 번호로 부르곤 했습니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이름 대신 번호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국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비판하며 학교에서 번호를 사용해 학생을 지칭

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번호로 학생을 지칭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을 비인격적인 주체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고 창의성 개발에 저해된다"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로 불리게 된 것일까요? 60~70년대만 하더라도 각 학급마다 학생 수가 최소 60명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번호를 매겨 부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 교육의 질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효율성보다 학생의 이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을 번호로 규정하는 경우는 죄수들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발장을 24601번으

로 부르듯, 학생을 번호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아반적인 행위라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학교에서도 감독과 같은 권력이 은밀히 작동된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한 집단의 다수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일종의 권력 장치로 본다면, 학생을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부르는 행위가 비인격적인 권력 장치 중 일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각 학급의 학생 수도 많이 줄어났는데 창의적 사고를 더욱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학생의 인격, 나아가 인성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소중한 이름을 불러줘야 하지 않을까요?

선거 평행이론

지난 11월 선거가 끝났다. 우리학교 선거에는 세 가지 평행이론이 존재한다. 첫 번째 평행이론은 바로 후보자들의 공약이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봤을 때 어디서 본 것 같다. 작년, 재작년에도 나왔던 공약인 것이다. 대체 왜 공약이 반복되는 것일까? 바로 공약이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1년이라는 짧은 임기동안 공약을 실천하기에 역부족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의 평행이론이 몇 년째 지속된다면 이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 재정적인 문제와 학생들의 무관심이 혼란되어 공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계속 공약이 이행되는 것이다. 이를 다음 총학생회에서 공약을 완성 시킬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데 무산되었는지 결과조차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 평행이론은 학생들의 무관심이다. 역대 학생회 선거를 돌아보자. 투표율이 낮아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했지만 무결된 적이 많았다. 그나마 작년과 올해 선거는 립말과 커피라는 투표유인으로 인해 무결되지는 않았지만 투표유인으로 투표함을 개봉한 셈이다. 올해 투표율은 최근 5년의 선거 중에서 최고치를 나타냈지만 지난 11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후보자간의 정책토론회에서는 학생

들의 관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세 번째 평행이론은 학교 측의 대답이다. 선거 공약을 위해 학생회 후보들 측, 당사자 측에서 공약을 제시하면 당시에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만 이를 이행하려고 하면 늘 벽에 부딪히게 된다. 물론 항상 그때마다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문제는 그 합당한 이유들은 매년 존재하고 공약 이행을 항상 막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 평행이론을 멈출 수 있을까? 먼저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모일수록 학생회가 추진하려는 공약에 힘이 실리게 된다. 그러면 공약 이행을 막는 벽을 쉽게 부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소통이 필요하다. 학생회와 학생들 간의 소통, 학생회와 학교와의 소통, 학교와 학생회간의 소통은 순서와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학생회와 학교, 학생은 순환적 관계에 놓여있다. 학생회의 공약 불이행이 비단 학생회의 잘못만이 아니며 학생들의 무관심이 비단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행히 먼저나 같지만 먼저나라는 중요하지 않다. 학교, 학생회, 학생 중 그 누구든 이 선거 평행이론을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펙, 더 이상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한성대신문사는 재능있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한성대 신문사 02)760-4186 / 한재원 편집국장 010-5473-2642

제28회 한성문학상

소설부문 당선작

열차가 움직이면 그들도 달린다

남자는 자신의 신세가 한심스러웠고 그러한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이야기조차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무심코 주변에 뻗어 있는 푸념처럼 남자는 어느새 핸드폰 전화번호부를 뒤적이고 있었다.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건 공사판 동료의 연락처였다. 그러나 그는 선뜻 전화하지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다 겨우 초록색 버튼을 눌렀다.

“강형?”
“어 그래. 무슨 일로 전화했냐.”
그는 연락한 지 상당히 오래된 지인의 전화를 받는 일은 그다지 기쁜 일이 아니라는 듯이 날카로운 어투로 대답했다.
“아니 뭐, 그냥.”

남자는 잔뜩 웅크려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순간 부끄럽다고 생각했는지 걸사리 말문을 열지 못했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는데 그냥 보고 싶네요. 돈 빌려 달란 얘기는 아니고 오랜만에 같이 술 한 잔 하고 싶어서요.”

남자는 강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첫 마디부터 그다지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러한 기색은 평소와 먼저 연락 한 적이 없는 자신 때문에 잠시 당황한 것뿐이라 생각하며 남자는 이 상황을 격정하는 자신과 타협했다. 그의 눈치가 맞았는지 강은 그다지 흔쾌하지는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는 태도로 수락했으며 세 시간 후라는 대단히 가까운 시간을 택했다. 남자는 생각했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약속을 잡은 것은 강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거나 대단히 여유로운 상황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남자는 은근히 전자를 바랐다.

남자는 강을 만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다. 강은 지금 구로역 근처에 살고 있고 일도 그 쪽에서 한다고 했다. 강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남자는 궁금했다. 자신이 공사판에서 벗어나 새로이 시작한 사업을 맡아먹고 다시 공사판으로 돌아간 것을 강이 안다면 속으로 자신을 비웃을 정도의 생활은 하고 있을지.

“구로에 뭐가 있지? 공구상가... 공장... 아니면 디지털단지 쪽인가?”
남자는 강이 공사판에서 꾸준히 일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떠올리곤 강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추측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곧 남자는 자신이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혼자 얼굴을 붉혔다.

플랫폼으로 한 층 더 내려가자 예상대로 퇴근 시간 때의 1호선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다. 붐비는 사람들, 학생들, 그 와중에 잠상인까지. 개판이 따로 없었다.

“이 제품이 이렇게 싼 가격이 팔릴 수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 제품 홍보 차원의.....”

이렇게 사람에게 둘러싸여 움푹딱딱 웃는 곳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고개도 함께 높이고 있는 행상의 모습을 보며 남자는 불쾌감을 느꼈다. 남자는 이런 곳에서 퇴근 시간에 장사를 하더니 멍청한 짓이라 생각했다.

“이번 역은 구로, 구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남자는 에어컨이 가동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하철에서 빠져 나왔다. 그는 곧 강을 만난다는 사실이 약간 설레었다. 그리고는 강을 만나며 그 설렘은 금방 사라졌다. 낡은 회색 점퍼에 아무렇게나 눌러 쓴 모자. 체구로 비해 지나치게 큰 바지. 달아선 밑창이 사라질 것만 같은 운동화. 그리고 목발. 강은 남자의 바람보다 지나치게 허름한 모습이었다. 둘은 어색한 인사와 함께 묘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걸었다. 남자는 강에게 다리가 왜 그러냐고 묻고 싶었지만 힐끗 힐끗 다리를 훑쳐 볼 뿐 묻지는 못했다. 강도 그 시선을 눈치 챘는지 아무 허름한 술집에 들어가 허겁지겁 술을 들이켰다.

“강형, 다리는 왜 그래요?”
적당히 취기가 오르자 남자는 궁금한 것을 묻기 시작했다.
“다쳤지 뭐. 공사판에서.”

강은 별 일 아니라는 듯 씩 웃으며 얘기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얘기 할 가치가 없다는 듯이 화제를 돌렸다.

“아이 그러니까, 니 힘든 일이란 게 뭔데?”
남자는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어, 그게 뭐 똑같조 뭐.”
남자는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다. 막상 자신의 밑바닥을 강에게 보여 주려고 하니 털썩 겁이 난 것이다. 하지만 강은 이러한 모습이 답답하기만 했다.

“니 할 말 있던 거 아니었나? 심겨운 새끼. 갑자기 이런 추레한 꼴 나 타나서는 알 말도 못 하고 말야. 사람을 불렀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가. 추레하기로는 내가 심하지마는.”

남자는 강의 뉘달에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자신이 사업을 시작한 얘기. 별거하고 혼자 사는 얘기. 자식들 볼 면목이 없는 얘기. 얼마 전 공사판에서 허리를 다친 얘기. 강은 묵묵히 얘기를 듣다가 한 잔 후들이 키고 조용히 잔을 내려놓더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무겁게 얘기를 시작했다. 일명 기아바이. 강은 지하철 장사꾼이었고 그들은 스스로를 ‘기아(飢餓)’와 ‘Buy’의 합성어인 기아바이라 부르다 했다. 계속 해서 강은 기아바이도 잘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사실 오십이 넘어서 몸도 성치 않은데 어디에 취직을 하며 또 돈이 어디 있어서 사업을 하겠냐며 정 할 게 없으면 자신에게 언제든 연락 하라고 말했다. 남자는 강이 지하철 행상이란 것에 놀랐고 ‘나도 해볼까’라는 자신의 머릿속 생각에 또 한 번 놀랐다. 남자는 돈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던 것이다.

남자는 곤죽이 되어 집에 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다. 늦은 시간임에도 깊숙한 곳에서 지하철 행상, 기아바이는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 남자는 눈을 떴다. 좁은 천장이 보였다. 남자는 일이 안 풀리는 게 좁은 천장 탓인 것만 같아 답답함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숙취에 선까지 못했다. 어제의 마지막이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지갑이 없다 못해 가족이 붙어버린 형상을 하고 있는 걸 바선 취할 대로 취하

고 계산을 혼자 다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또 집에 오다가 지하철 행상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머리를 쥐어짜며 오랜만에 마신 술을 자제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다. 남자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시간보다 먼저 보인 것은 새벽에 온 강의 메시지였는데 원한다면 오늘 당장 나와도 좋다는 내용이였다.

“생각 있으면 미리 전화 한 통 하고 9시 반까지 구로역으로 와라.”
남자는 여전히 자존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만 밀려오는 숙취의 고통과 요통의 저릿함을 느끼고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공사판 보다는 덜 힘들겠지.”
남자는 속으로 말했다.

그는 출근 시간대가 약간 지난 철기차 안에서 수치심을 격정했다. 자존심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였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혹시 아는 사람(몇 없는 친구나 가족들, 자식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쓰잘머리 없는 생각을 하는 동안 어느새 구로역에 도착해 강을 만났다. 강은 남자를 반가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절뚝거리며 구로역 중에서도 후미진 곳으로 데려가더니 진흥유통이라는 허름한 간판이 걸린 곳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진 사장. 날이 많이 덥네.”
강은 남자를 만날 때에는 달리 살가운 척 인사를 건넸다.

“예.”
진 사장이라는 사람은 신문을 펼쳐든 채 힐끗 한 번 보고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건물의 내부는 남자의 생각보다 훨씬 좁았다. 조그마한 간이의자가 여러 개 있었고 지하철 행상이 끌고 다니는 조그마한 카트와 퍼린 테이프로 감겨있는 박스가 여러 개 있던 탓에 내부는 더 좁아보였다. 간이의자에 강과 비슷한 몸골을 한(사실 남자와도 큰 차이는 없었다) 중년 남성들이 앉아서 라면이나 김밥을 먹고 있었고 그 중에는 여성도 몇 끼어있었다.

“진 사장. 이쪽은 내 후배. 오늘 내 안테나로 될 건데. 저번에 왜 그 빈 구간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 쪽에 좀.....”

강은 진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듯이 말했다.

“아 거참. 강 씨! 구간이 빈다고 내 맘대로 채울 수 없는 거 알잖아. 왜 아는 사람이 그래? 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일도 한 일 년은 한 사람이 아직도 이 판을 그렇게 몰라. 아침부터 재수 없게 나 참.”

진 사장은 펼쳐보던 신문과 함께 미간을 구기더니 강을 질책했다. 남자는 강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못 놀랐다. 남자가 알고 있는 강은 누군가에게 아무 떨 만큼의 능청맞은 면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이 일을 잘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
강은 말을 잊지 못했고 진 사장은 다시 신문을 펼쳐 들었다. 다른 기아바이들의 힐끗거리리는 눈길들이 강과 진 사장의 모습을 훑었다.

“아 뭐해요. 가서 앉아 있어요. 알아는 볼 테니깐.”
진 사장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때야 강은 간이의자에 앉았다. 남자는 강을 일부로 쳐다보지 않았다. 주위에선 라면을 후후 불어가며 먹는 소리와 무언가를 씹는 소리뿐이 들리지 않았다. 곧 건물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남자는 기아바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 진 사장이 자신에게 자리를 내어 주지 않을 것만 같아 이상하게도 불안해졌다. 그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보다 한참 어린 진 사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조금 시간이 흐른 후 11시에 가까워지자 주변은 부산스러워졌다. 다들 무언가를 주섬주섬 챙기는 게 싫더니 구로 금점, 구로 인천, 구로 서울, 금점 안산 등 구간을 진 사장에게 보고하며 카트와 물품이 담긴 박스를 챙기고는 하나 둘 건물을 빠져나갔다.

“강 씨, 시간 됐어. 가자고”
강은 큰 양복을 입은 사내의 말을 듣고는 주섬주섬 무언가를 챙기는 척 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카트위에 박스를 올렸다.

“진 사장 구로 인천 11시 갑니다.”
큰 양복의 사내는 강보다 나이가 더 많은 듯 했다. 남자는 오늘따라 무거워 보이는 목발에 의지한 채 강강대는 강에게 말을 거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여 양복의 사내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지, 여기는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아 강 씨 동생이시구먼. 내가 강 씨보다 한 살 위니까 편하게 김 형이라 불러. 단가 치는 일은 처음인가? 하긴 처음이니까 물어봤겠지. 단가 치는 일이 난잡해 보여도 다 우리들끼리 물이란 게 있던 말야.”

김은 물에 힘을 주며 말했다.

“구로 인천이면 구로에서 인천까지 왕복. 이게 한 바퀴야. 우리 업체에선 한 시간마다 정해진 구간에 나가서 두 바퀴 씩 돌고 들어오는 시스템이거든. 임으로 즐기는 걸 단가 친다 그러고 말은 잘 하나?”

김은 뭔가를 가르쳐준다는 것이 신이 난 듯 말이 빨라졌다. 남자는 보통 말이 빨라지면 잘 못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김의 말은 아무리 빨라도 귀에 속박하는 느낌이라 생각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건들 팔고 남는 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아가 보니까 다들 빈 유통인가 거기서 값도 안 쳐르고 그냥 가지고 나가면데.”

“업체에서는.....”
김이 웃으면서 말을 꺼내는데 강이 신경질적으로 가로막았다.

“참 시끄럽소 뭐 자랑이라고 주절주절 알려 주시소? 차피 단가쟁이들 하는 것이 다 똑같은데. 니도 뭐가 그리 궁금한데. 성구 그 개새끼가 자리 주변 니도 오늘 내 하는 거 보고 배워서 다른 구역 가서 팔면 된다. 그냥 보고 배이라.”

남자는 성주가 진 사장의 이름일 것이라 짐작했다.

“어휴. 오늘 뭐 이리 덥네.”
괜히 무안한 김이 헛기침과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셋은 김강거리며 겨우 개찰구에 도착했다. 김과 강은 개찰구 밑에서 파란 박스에 짐을

비닐봉투를 싣었다.
“이것도 왜 이러는지 궁금하지?”
김이 봉투를 씌우면서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남자는 적극적으로 설명해주려 하는 김이 싫지는 않았지만 강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대꾸하기도 어려워했다.

“지하철 단속원들 눈이라도 좀 피해 불라고 이러는 거야. 난 이 비닐 싣을 때가 제일 비참 하더라 범법자들 마냥.....”

“아이 진짜!... 쫓.”
김이 씌우던 비닐을 내팽개치고 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자 김은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참나 알았다. 알았다.하고는 남자를 향해 머쓱하게 웃어보였다. 그리고는 잠시도 입을 쉬지 않고 혼잣말을 계속했다.

실없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남자도 맥이 풀려버렸다. 서둘러 다른 일을 알아볼까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이 두 시간도 안돼서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지만 곧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는 생각이 복잡해졌다.

지하철이 오자 남자와 강이 먼저 탔다. 김은 다음 열차를 타는 모양이다. 강은 남자에게 그냥 아무데나 앉아 있다가 돈 주고 물건을 사면 끝이라 했다.

“안테나를 게 쉽게 얘기해서 바람잡이다 바람잡이. 나는 그냥 승객인 척 하고 앉아 있다가 물건 하나 사면된다. 내 칸 옮길 때 같이 옮기고”

남자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묘하게 긴장되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소심해서 그렇다고 남자는 생각했다. 김이 단가를 치기 시작했다. 그가 파는 물건은 여름용 토시였다. 남자는 강의 말에 귀 기울였다.

“안녕하십니까, 승객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 상품은, 절대! 중국산이 아닙니다. 백퍼센트 국산이고요.”

사투리가 억양과 여과 없이 서울말로 번역되고 있었다. 남자는 어눌한 서울말 때문인지 잠시 멍해짐을 느끼고 마치 승객이 된 것처럼(승객은 맞지만) 강을 바라보았다. 남자는 순간적으로 강이 순 뺑뺑이라고 생각했다.

“단 돈 삼천 원에 모십니다!”

못하나? 정신 차려라 이 새끼야. 그리고 니 허리 아픈 거랑은 뭘 상관인 데? 내는 뭐, 뭐, 사지 말정해서 이 짓거리 하고 있는 줄 아냐? 열차가.., 열차가 있어야 새끼야”

한시가 조금 넘자 남자와 강은 두 바퀴를 돌고 구로역에 도착했다. 두 시간을 계속 짐을 끌고 다녔더니 남자는 몸이 늘어지는 것을 느꼈다. 몇 심분 후에 큰 양복바지를 펼리며 김이 도착했다.

“많이 팔았냐? 난 오늘 재미 좀 봤다.”
김이 바보처럼 실실 웃으며 얘기했다. 강은 ‘말도 마이소. 오늘 같은 날은 또 처음이네’라며 혀를 찼다. 셋은 업체로 향했다.

업체에 도착하자 다른 기아바이들이 물건 값을 치르고 있었다. 곧이 김의 차례가 되었다.

“어휴. 단가쟁이도 아예 못해먹을 짓이여. 열여섯 장. 사만 오천 원.”
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진 사장은 박스를 대충 뒤적거리더니 김에게서 이만 원과 천 원짜리 몇 장을 받았다.

“고생했어요”
남자는 막상 강과 함께 진 사장 앞에 설 생각을 하니 긴장을 하게 되었다.

“열세 장. 삼만 구천 원.”
강의 말을 듣고 남자는 고작 열 세장밖에 팔지 못했는지 의심스러웠다.

“에이. 강 씨. 분발합시다. 안테나 달고 뭐하는 거야 이게.”
진 사장의 미간이 파였다. 강은 진 사장의 할난에도 진 사장에게 남자가 일할 빈 구간을 부탁했다. 남자는 하루 종일 강이 예민했지만 다 본 일을 생각해 준 것이라 생각하니 고마움을 느꼈다. 값을 치르고 나니 남는 돈은 고작 이만 오천 원뿐이었다. 남자는 고작 열 세장 치고는 괜찮은 벌이라고 생각했다.

“밥이 먹으러 가자.”
둘은 김과 함께 커피라면과 김밥뿐인 조촐한 식사를 했다. 조촐한 식사 자리에서도 김의 입은 쉬지를 않았다. 강은 정산 후부터 오전보다 예민해진 상태로 김의 얘기에 미미한 반응을 보였다. 강은 밥을 먹는 내내 김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남자는 둘 사이에 무언가 안 좋은 감정이 생



▲ 삽화 이자아

강은 단가를 다 친 상황에서 남자가 안테나 역할을 하지 않아 당황했다. 그래서 강은 남자를 계속 흘깃하고 쳐다보았고 그럼에도 남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 남자의 옆을 지니며 그의 발을 툭 쳤다. 남자는 그제야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선잠을 자다 깬 사람처럼 당황했다.

“거, 하나 줘요.”
강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고 남자는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강은 사겠다는 남자의 말을 무시하고는 다음 칸으로 이동해버렸다. 남자도 정신을 차렸는지 강을 따라 이동했다.

“니 뭐하소? 돈 벌기 싫드냐?”
“그게 아니고 요통 때문에.....”
남자는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뻔한 변명을 해버렸다.

“니 공사판에서부터 일찍이 가는 알고 있었대마는 이리 간단한 일도

긴 것은 아닌가 걱정했지만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식사를 다 마치고 김은 남자에 관해서 물어왔다.

“그런데 저네는 어쩌다 기아바이를 하려고 왔어? 어디 아픈 데가 있나? 아니면 전과가 있나?”

전과라는 말에 남자는 이유 없이 괜히 당황했다. 그리고는 곧 기아바이의 특성을 알아차리고 기아바이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전과자들이러니 생각하게 됐다.

“야,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 협착증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공사판을 못 뛰게 돼서요.”

“쫓. 안 됐구먼. 하긴 강 씨도 공사판에서 다리를 다쳐서 일루 들어온 거였지? 강 씨도 내가 처음에 많이 도와줬어. 재대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단가 치는 법도 알려줄게 배워요.”

남자는 김의 호의에 이제 지리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들 업체로 돌아갔다. 강은 오후 시간에 안테나를 치느니 그냥 집에서 쉬라며 남자를 보냈다. 그리고 굳이 억까지 마음을 내었다.

“김 씨 너무 믿지 마라.”

“에?”

“그 사람 전과자다. 사기죄.”

남자는 강의 말을 듣고 지레 겁을 먹음 만도 했지만 자신에게 잘해주는 김을 깊이 의심하기란 내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는 강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그러나 남자는 강이 오후 타임에 자신을 안테나로도 쓰지 않고 집으로 보내는 것이 돈을 나누기 아까워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여 내심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을 의심했다. 그는 재밌는 사람이긴 김이 자신과 더 친하게 지내자 강이 둘 사이를 질투한다고 느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이 남자에게 해를 가할 이유가 방법도 없어보였다. 남자는 어찌되었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후퇴지근한 지하철 안에서 자신이 생각 외로 똑똑하다고 느꼈다. 바로 진 사장의 태도 때문이었는데 진 사장은 정산할 때 불품의 개수를 세지 않았다. 만약 자신이 구간을 얻고 10개를 판 후 5개 밖에 못 팔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수익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다. 물론 함부로 실행에 옮기려면 다소 위험한 일이었다. 남자는 갑자기 흥이 나서 다음 날 아침 김과 이 일에 대해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다. 이상하게도 요통은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
남자는 지하철에서 빠져나오며 지하철이 한없이 빠지기만 하는 늘 같다고 느꼈다. 어느 출근 모습과는 달리 업체 안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대에도 침뚫한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다. 진 사장은 오늘도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꼭 졸고 있는 것 같았다. 강은 어제 일을 마치고 진 사장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어느 구간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물어봐도 그저 내일 다시 얘기하자는 귀찮은 투의 말 뿐이었다. 그래도 강은 남자에게 구간을 내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은 기분이 조금 괜찮은 모양이었다. 강은 11시가 가까워지자 구간을 알아보기 위해 진 사장에게 다가갔다.

“진 사장.”
강이 진 사장에게 말을 걸자 그는 발작하듯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다.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내 후배 구간 말이야…….”

강이 초심스레 얘기를 꺼내자 진 사장은 짙은 쌍꺼풀이 생긴 눈으로 강을 쳐다보다 이내 말뚝을 이해하고는 몸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구로 금정 11시 4시. 금정 쪽 업체 대부분이람은 말했는데 몇 군데 안 된다는 새끼들이 많아서 방해할 지도 몰라요. 내가 그거까지 신경 써 줄 수는 없잖아? 그치?”

진 사장이 손으로 얼굴을 세수하듯이 하며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알 수 없는 투로 말했다. 강은 알았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깊은 한숨과 함께 남자에게 다가갔다.

“처음이라 아마 당황스런 때도 있을 거다. 역에는 어제처럼 드가본 되고, 아마 금정 쪽으로 가다보면 그 쪽 업체 사람들이랑 만날 건데 니를 방해할 수도 있다. 이 판도 구역이 엄격해서 그렇게 되면 기능 통 밟았다 생각하고 다음 열차 타라. 근데 니 역잡새가 어떤 옷 입고 다니는 지는 아냐? 하여간 재복 같은 거 보이면 빨리 도망가라. 벌금이 세.”

남자는 혼자 물건을 파는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섰다. 그는 자신을 소심하고 묵묵하지만 본인이 할 일은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을 곧 마주편이 없고 외향적이지 못하다는 뜻도 될 수 있다. 또한 그의 생각뿐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기도 했다. 역잡새는 지하철 보안관을 낮춰 말하는 단어인데 그는 보안관에게 걸리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어제 김에게 주위들은 바르는 첫 번째는 삼 만원 다음은 오 만원 그다음은 십 만원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재수가 없는 날은 빼빼지길 알고고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11시 구로 인천 갑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나가기 시작했다. 남자도 낯설지만 주섬주섬 단가를 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정작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작은 카드와 피란 상자들을 질질 끌고 가는 그들의 행렬은 게임들이 일하는 모습을 연상케 했다. 남자는 병점 행 열차에 올랐다. 수레를 끌고 들어서자 남자는 식은 땀이 나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열차에 탄 그를 주시했다. 남자는 사지도 않을 거면서 자신이 무엇을 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혐오스럽기까지 했다. 남자는 버벅거리며 단가를 차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이 제품은 여름용 토시인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사용하시면 딱 일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거들어왔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지 분간할 수 없었다. 자신의 멍청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생각한 남자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갑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한 그는 멘트를 모두 끝내지도 않은 채 뜬금없이 다음 칸으로 넘어가버렸다. 그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문을 열어 칸을 넘어가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런 그는 문을 하나하나 열 때마다 옷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것 같았다. 그는 1호선이 역간의 간격이 넓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그 간격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문을 하나 둘 재개는 남자의 머릿속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떠올랐다.

“또 뭐가 두려웠지?”

남자는 지하철이 자신만의 공간이 아님을 떠올렸다. 전 부인, 가족, 친구, 자식들과도 언제든지 마주쳐도 이상하지 않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냈다. 그러자 열차 안의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남자는 어딘지도 모르는 역에서 내렸다. 어딘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곧 다시 열차를 타야할 운명이기 때문이다. 남자는 요통 때문에 허리를 두드리며 지하철 나무 의자에 앉았다. 애초에 멘트조차 생각하지 않고 부딪힌 것이 잘못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실 이 시간대에 누군가를 만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멍청한 생각임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고 전 와이프는 회사에 있을 것이며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기아바이가 아닌 이상 이 시간대의 열차에서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는 멍청한 행동을 한 자신을 위로하며 어떻게 해야 물건을 팔 수 있을지 침착하게 생각했다. 다음 열차를 타고 준비한 멘트를 생각하며 침착하게 물건을 팔아나갔다.

“중국산이네.”

낮선 남자의 목소리가 남자의 뒤에서 들려왔다. 그는 인상을 쓰고 있었으며 남자의 행동이 매우 못마땅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김 씨의 옷처럼 터무니없이 큰 양복을 입고 있었으며 종아리까지 다 덮을 수 있을 정도의 긴 양말을 신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카트를 손으로 잡고 있었다.

“처음 보는 아저씨네 허락은 받고 하는 거여?”

남자는 당황했지만 업체의 이름을 대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진흥유통 소속이라고 말했다.

“진흥유통? 이 시간에 걸처제 배정했을 리가 없잖아. 내려요.”

남자는 같은 기아바이에게 쫓겨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가로막은 기아바이의 양말을 벗기면 종아리에 큰 상처와 문신이 있는 상상을 했다. 상상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남자는 결국 몇 개 팔지도 못한 채 열차에서 내려야 했다. 시간은 어느새 두시를 향해가고 있었다. 업체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었다. 남자는 하는 수 없이 반대편 열차에 올랐다.

*

남자는 고작 5개의 물건을 팔고 돌아왔다. 진 사장에게 물건 값을 치르고 나니 정말로 남는 게 없었다. 진 사장은 다섯 개라는 말을 듣고는 코웃음을 치며 ‘아무리 처음이라지만’이라며 중얼거렸다.

강은 남자보다 먼저 와 밥을 먹으며 간 모였이었다. 남자는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 업체에 남아 하염없이 오후타임을 기다렸다. 점심시간의 업체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진사장도 아침 대기시간과 오전, 오후타임의 정산 시간 업체에 있었고 다른 시간엔 모델이나 당구장을 둘러날락하는 것 같았다. 다른 기아바이들도 업체 특유의 분위기 때문인지 그 건물 안에 있는 것을 싫어했다. 남자는 화장실에서 불임을 보는데 업체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들어온 사람은 남자가 업체 화장실에 있는 것을 모르는지 건드려진 노래를 불렀었다. 남자는 화장실에서 나왔다.

“악!”

업체에 들어온 남자는 김이었다. 그는 심하게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며 뒤로 꼬꾸러졌다.

“감 형? 오늘 하루 종일 안보이더니.”

“이런 씨팔년이,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남자는 김의 민감한 반응에 다소 놀랐지만 어제 자신이 생각했던 천재적인 발상을 김과 한시라도 빨리 상담하고 싶었다. 남자는 김에게 판매한 물품을 속이는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은 묘연한 표정을 지으며 남자를 몇 초간 응시하더니 이내 미소를 짓고는 ‘자네가 보통 똑똑한 것이 아니구만’이라며 크게 웃고는 진 사장이 불품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며 남자에게 오늘부터 진 사장을 속이자고 말했다. 남자는 김의 칭찬을 듣자 자신도 모르게 약간의 우쭐함을 느꼈다. 시간이 4시를 가리키자 피란 게임 행렬이 다시 줄을 이루었다.

남자는 오전타임보다 더 침착하게 물건을 팔아나갔다. 그러나 아침보다 많아진 사람들 덕에 칸을 이동하는 것에 승객들도 기아바이들도



남자의 허리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남자는 핸드폰의 진동이 느껴져 칸을 옮기는 도중에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누군가와 부딪혔다. 남자는 그다지 세게 부딪혔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부딪힌 남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씨씨. 조심 안해?”

그 남자는 이십대 중반으로 보였고 남자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건장한 남자가 괴상했다. 그러나 그의 성격상 싸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미안합니다.”

“씨팔 미안합니다? 좆같은 게 진짜. 미안하면 다냐? 안 그래도 기분 더러운데 씨팔.”

젊은 남자의 무례함이 도가 지나치자 주위에서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젊은 남자를 제지하지는 않았다. 남자는 화도 나지만 너무나 당황스러워 어떠한 말조차 할 수 없었다. 남자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열차를 내려야 했다. 그가 오전에 보았던 무신의 눈들이 오후에는 연민을 띄고 있었다.

남자는 너무나 답답했다. 역잡새와 약간만 비슷한 복장을 한 사람들만 봐도 그들을 피해 달아나야했고 같은 기아바이가 열차에 타고 있으면 그들은 자신을 방해했다. 방금 전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당혹감에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는 아까 울렸던 핸드폰 진동을 생각해 내고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수수료없는데*출김미영팀장입니다.고객님께서는최저이율로최대3000만원까지30분이내통장입금가능합니다!”

남자는 다시 업체로 향했다. 오후타임의 마지막이 더럽게 끝났지만 진 사장을 속인다면 수익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사람을 속이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진 사장이기에 정당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했다.

“아 거참 장사 안 돼. 분발할게 진 사장. 열다섯 장 삼만 구천 원.”

김은 웃으며 말했다. 남자는 김이 수량을 줄인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진 사장은 너무 적은 수량에 한숨을 쉬었지만 별말은 하지 않았다. 남자는 진 사장 앞에 서서 거짓말을 하기가 두려웠다.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남자는 계속해서 머리로 중얼거렸다. ‘열장 삼만 원, 열장 삼만 원, 열장 삼만 원…….’

“열일곱 장 오만 천원어요!”

남자는 머릿속으로 되뇌던 말을 끝내 말하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진 사장의 앞에만 서면 어떤 기운에 휩싸여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온몸에 저림을 느꼈다. 진 사장은 이번에도 깊은 한숨을 쉴 뿐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

“어허 잠깐만. 열일곱 장이러니. 참 나. 아니 이 사람 그러면 쓰나. 아까는 많이 팔았다며. 하 참.”

김이 갑자기 태도를 달리하며 남자에게 말했다. 남자는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진 사장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김씨?”

진 사장은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다.

“재고 수량 한 번 확인하는 게 좋을 거야.”



김은 능청을 떨며 말했다.

진 사장은 남자의 박스 속 재고를 새기 시작했다. 남자는 긴장한 탓인지 수량을 속인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긴장했다. 재고를 세던 진 사장은 장부를 확인하고는 앉은 채로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몇 초간 응시하더니 진 사장은 남자에게 펜을 던졌다. 펜은 세계 날아가지 않고 포물선을 그리며 남자의 얼굴을 치고는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씨팔 장난해?”

남자는 진사장이 화를 내는 이유를 몰랐다. 순간 자신이 판매한 물품을 잘못 센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었다. 진 사장은 다짜고짜 남자의 뺨을 때렸다. 남자는 요통 때문에 뺨을 맞았는데도 뚱이 휘청거렸다.

“김 씨도 속였습시다. 김 씨 재고도 새어보십시오!”

남자는 억울함에 소리쳤다. 진 사장은 김의 재고도 새어 보고는 남자를 더 한심하게 바라봤다. 남자의 예상과는 달리 김의 재고 수량은 정확했다. 남자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야 김이 전과자처럼 보였다고 그의 긴 양말 속에 어떻게 칼 맞은 자국 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됐고 배상이나 해. 오늘 번 돈은 전부 다 반납하고 앞으로 여긴 열신도 하지 마.”

진 사장은 상황을 정리했다. 남자의 지갑도 정리했다. 남자는 김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좆웃.”

김은 돌아가는 남자를 보며 혀를 찼다. 남자는 체념했다. 더 이상 이곳에 올 일도 김을 볼 일도 없었다. 하지만 강에게는 말하고 싶었다. 강이라면 자신을 이해하고 김과 대신 싸워줄 것만 같았다.

“강형?”

그는 강을 불렀다. 강은 그를 살짝 뒤돌아보더니 다리를 절뚝거리며 서둘러 자리를 피할 뿐이었다.

열한시가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달리는 지하철 안에는 기아바이가 있었다. 그는 웬지 모르게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남자는 행상을 불렀다. 그러나 남자는 지갑을 만지는 순간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행상은 그에게 ‘몇 개 드릴까?’라며 누런 이를 드러내며 물었다. 남자는 괜히 물건을 이리저리 둘러보고는 ‘중국산이네.라고 말했다. 그는 나름대로 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행상은 남자가 자신과 같은 기아바이라서 방해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이고 일진 더럽네. 너 장사 할 때나 방해하지 왜 카드도 안 끌 때 방해하냐?”

기아바이는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남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기아바이의 행패에 겁을 먹었으니 이제 곧 가까운 역의 지하철 보안관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기아바이의 박스에 수북이 쌓인 팔 토시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끈이 어 열차가 느려졌고 기아바이도 그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남자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욕을 퍼부어댔다. 남자는 사라져가는 남자를 보며 마치 이곳이 자신의 세계인양 느껴졌다. 지하철은 어김없이 다시 움직였고 그들도 어김없이 다시 달리는 듯 했다.

소설부문 심사평

소설의 시선으로 연민 풀어내기

김동현(한국어문학부 교수)

투고 작품들을 받기 전 꿈을 꾸었습니다. 14편 모두가 치열한 작가의식과 높은 완성도를 지닌 작품들이었습니다.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하기 위해 고뇌하고 분투하는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민의 시간들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 오래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14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네 사람이 예심을 진행했고 여섯 편의 작품이 본심에 올랐습니다. 예심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눈에 띄는 작품이 없어 아쉽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선작과 가작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지만 격려의 의미를 담아 당선작을 내기로 했습니다.

본심에 올라 온 작품은 『24』, 『뫼별 깃발』, 『유희』, 『바람이 불어다오』, 『상상』, 『열차가 움직이면 그들도 달린다』였습니다. 추리 소설적 발상을 끌어 온 『24』(정원교)는 다문과 사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인물 설정, 진술과 서술의 교차 구성, 연민 또는 연대라는 감정의 형상화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물의 관

계, 만남의 계기, 사건의 정황 등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모호하며 주제의식이 선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뫼별 깃발』(이명수)은 집단과 개인의 관계, 군중 심리, 사이버 공간의 속성들을 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 균형감과 짜임새 있는 구조로 잘 묘사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 방식 즉 결말구조와 결정력이 주제가 지닌 의미를 소설이라는 양식에 걸맞게 풀어내는데 실패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유희』(정도빈)는 기억을 성형한다는 의미로 유희를 재해석하는 발상이 참신하고 보여주거라는 방법적 모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상적 상황을 소설적으로 다룰 때 필요한 최소한의 리얼리티를 확보해 줄 묘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구성 또한 참신한 소재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다오』(양형원)는 가족의 해체라는 문제를 아이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그려내는데 묘사력과 문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해 아이의 말답지 않게 직설적으로 풀어내 버리는 버릇이 자주 나타나고 서사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최후까지 당선작과 경합을 벌인

『상상』(강지구)은 현실에서 당한 폭력을 상상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예리한 문제의식을 실존적인 서술기법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제목이 주는 노골성, 현실에서 살인이라는 선택을 하고서도 옹호하려 했다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성을 선택한 데서 오는 윤리적 문제, 언어의 조약함 등이 해결된다면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열차가 움직이면 그들도 달린다』(강원철)는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인물과 상황의 결합 방식이 유기적 연관성을 확보하지 못해, 인물이 우연적 상황 속에 던져진다는 설정에 가깝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서사적 상황이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고 ‘기아바이’라는 인물형을 무리 없이 제시해 주었다는 점, 리얼리티를 상당한 수준으로 구현해 낸 점 등이 미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발로 뛰고 가슴으로 그려 낸 작품으로 절제된 연민의 정서가 돋보였습니다. 당선을 축하하며 정진을 부탁드립니다.

* 예심에 한성문학상 소설 부문 수상자인 김인경, 정원철, 김대식 세 사람이 참여했음.

소설부문 당선소감

글을 보여준다는 것



강원철 한국어문학부 2학년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떠오르지 않는 낱입니다. 지난 월요일 연락을 받아 한성문학상 단편소설 부문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실에서 과제를 하다가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보 같이 하직거리며 지인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닌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 경험도 부족한 제가 단편소설을 써서 상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맙습니다. 곧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입대 전에 저에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어문학부에 소속된 소설 창작 소모임 ‘정류장’에서 처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글을 썼을 때 학우님들의 관심 속에서 밟고 밟아 이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때는 제 글이 평가받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게다가 호평을 받지 못했으니 더욱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글이 나아지면서 칭찬을 듣게 되고 제 글에 조금이나마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작은 자신감은 제 글을 품

짐을 읽어주시는 ‘정류장’ 학우님들과 제 주변 지인들 덕분에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술을 먹어도 음악을 해도 글을 써도 공부하는 안 해도 항상 저를 지지해주신 엄마, 타지에서 고생하시는 아버지, 우리 배짱이 누나, 항상 기발수 있는 소중한 가족들, 지금은 뽀빠이 헤어졌지만 항상 텔레파시가 통하는 우리 친구들, 많은 가르침 주신 선생님과 같이 일하느라 고생한 문화부, 한국어문학부 학생회 ‘라온’ 학우님들, 한국어문학부 동기님들, 한국어문학부 밴드도 여러분, 나랑 많이 놀아준 건전지, 고성방가, 건, 포노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생애 처음으로 인정받는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류장’ 선옥이형, 명수형, 준엽이형, 지규형, 훈영이형, 도빈이 모두 감사합니다.

글을 쓰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쓴 저의 소설도 미숙한 부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용기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설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취미로 글을 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소설 창작 소모임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자신의 글을 지인만 읽는 친구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신의 글을 누군가가 꼼꼼히 읽어준다는 것은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그 친구들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작품을 읽어줄 누군가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시부문 가작

빛깔

여름 어느 해변가에
그대를 따갑게 내리쬐는
서늘이 퍼런 햇빛
밤이 되면
그대를 감싸 안아주기 위하여
바다 위에 바스락거리는
찬란한 별빛이 된다

겨울 어느 해변가에
자지 않고 깨어 있는
날썩 바람
밤이 되면
바다에 퍼져나가는 잔잔한 물결이,
바다를 포근하게 담아내는 밤빛들이,
깨어 있는 바람을 감싸 재워준다

그 해 시린 겨울이 지났고
동백 필 무렵
그대의 관대한 사랑을
바라보는 자주빛의 자운영꽃
저편에서 사랑의 눈길 건네주어
어두운 겨울밤 속에서도
따스하고도 포근한 밤빛 느껴본다

▲ 삽화 이지아

시부문 심사평

편안하게 읽히는 시의 미덕



박호영(시인, 한국어문학부 교수)

예심을 통과해 본심에 올려진 작품은 모두 39편이었다. 기대를 가졌으나 흡족할 만한 작품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 아쉽다는 느낌이였다. 왜 요즘 대학생들이 시 창작을 등한히 할까 생각을 해 보았다.

엄밀히 따지자면 삶이 점점 어려워져 대학생활 하기도 버거운데 한가히 시상이나 떠올리며 시작에 열중한다는 것이 사치인지도 모르겠다. 또 하루 종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매달리다 보니 애초 정서의 함양이라는 여건 조성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삶

이 바쁘고 각박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답고 축축한 詩情이 아닐까. 지면이 제한된 관계도 있어서 본심에 올라온 작품들에 대한 간단한 총평만 하고자 한다.

「엘리베이터」(박예록) 외 4편의 작품은 비유나 유추의 수준이 진부하고 상식적이었다는 생각이다. 소재의 대상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비유적 인식을 시도한 점은 좋으나 시적 완성도가 부족하다. 「태양을 보면 잔하는 것들」(강병조) 외 5편은 실험적 기법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법이 시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서사성을 띄며 시를 길게 끌고 나가는 힘은 가능성으로 부각된다.

「칼국수」(안영준) 외 7편은 역치를 부리지 않는 자연스런 표현이 장점이었다. 하지만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시어의 조탁이 요구된다. 특히 시에서의 외래어 남용은 시정해야 할 사항이다. 「증발」(최준수) 외 4편은 시적 발상은 훌륭하나 표현력이 뒷받침을 해 주지 못했다. 자신의 표현이 다른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한다. 「이선」(박지

호) 외 4편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극시와 유사한 시를 선보인 것이라든가, 방황하는 자아에 대한 천착 등에서 남다른 기량을 보여주고 있으나 시적 형상화에는 실패했다는 생각이다.

「나는요...」(무로하라 쿠미) 외 4편은 어휘 사용이나 표현의 수준을 보건대 우리 국적을 지닌 학생이 쓴 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운 상태에서 이만큼의 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칭찬할 만한 일이다. 「빛깔」(이다정)을 가작으로 선정한다. 이 작품과 함께 제출한 「꽃으로 피워주어라」 「서 울여 역사 안에서」 「밤나무」 「남은 자를 위하여」 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곳곳에 무리한 표현이나 적절하지 못한 어휘 구사가 눈에 띈다. 무엇보다도 이 학생의 작품이 지니는 미덕은 시적 진술에 억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편안하게 읽힌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표현력이나 어휘력이 아쉽게도 당선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분발을 바란다.

시부문 당선소감

숨겨놓은 소리가 풍랑보다 더 거세 질 때



이다정 한국어문학부 4학년

어느 순간부터가 나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조금씩 시를 써왔던 것 같다. 몰래 써온 이유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성격 탓도 있겠지만, 나의 글을 쓰는 나의 시를 내가 모르는 누군가 본다는 것은 조금 창피한 일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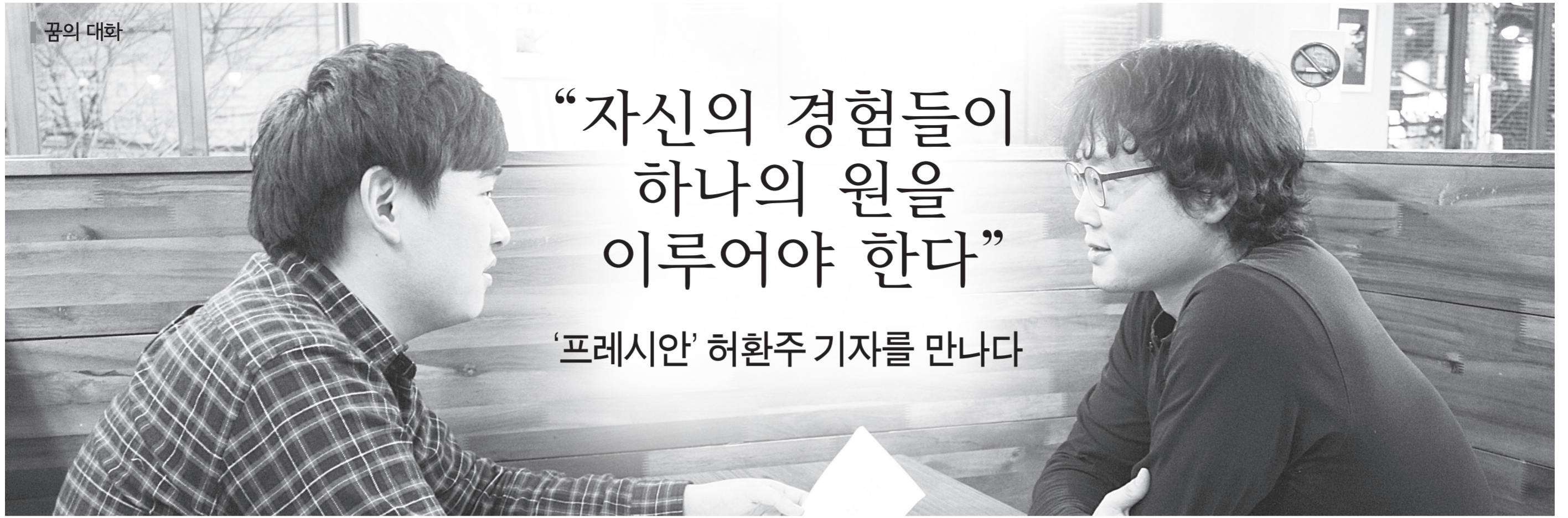
더군다나 시에는 나의 생각의 파편들과 개인적인 경험들의 조각이 모여 있어서 다른 사람 앞에 펼쳐 보이는 것이 어쩐지 쑥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시를 쓰다보면 나의 사색들이나 심경들을 은폐시켜서 퍼즐의 조각처럼 시 속에 뿌려 놓았을 때의 기쁨이 있다. 시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개인적인 삶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기 전에 방패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한성문학상 공모에 시를 낸 것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어쩐지 용기가 난 것은 평탄한 학창시절 이후, 근래 몇 년간 개인적으로 나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아주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크고 작은 기쁨, 슬픔, 절망 등의 뒤섞였던 일련의 감정들이 때로는 아픈 상처로 때로는 유쾌한 흔

적들로 내 안에서 자국이 되어 되새겨지고 있었나 보다. 그런 경험했던 일들로 인한 수많은 감정들을 시로 토해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 토해낸 시를 본 다른 사람들이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함께 이해하고 공유해서 어떤 공감을 형성하고 싶었고, 그들의 지쳐있던 심신의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서였다. 사실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내 시는 너무도 부끄럽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시를 보고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가작으로 당선된 것이 조금은 겸연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기도 하다.

이번 한성문학상에 낸 시들은 가족들에게 느낀 감정이나 주변에서 내가 쉽게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을 소재로 했다. 내가 쓴 시에서의 가장 큰 원동력은 나의 엄마와 나의 아빠이다. 엄마와 아빠에게서 얻은 기운과 힘이 너무도 감사하다. 아린 아픔을 주신 적도 있지만 내 삶에 엄청난 행복과 만족을 얻게 해주시는 분들이다.

그렇기에 내 시의 팔 할은 엄마, 아빠가 쓰신 것이고 나머지 나의 친구들, 경험들, 사색들, 여러 좋은 시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부족하고 미약한 내 시가 당선되어 영광이며 기쁘고, 나를 응원해주는 부모님, 오빠, 언니, 친구들 모두에게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꿈의 대화

“자신의 경험들이 하나의 원을 이루어야 한다”

‘프레스리안’ 허환주 기사를 만나다

▲ (좌) 이재훈 멘티, (우) 허환주 멘토이다.

‘꿈의 대화’는 꿈에 대해 멘토와 멘티, 기자가 한 자리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획코너입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와 그 꿈을 좇는 멘티(본교 학생)가 함께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멘티는 꿈을 향해 보다 명확해진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주>

여러분은 ‘기자’가 어떤 성격을 가진 직업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사건을 중립적으로 관찰하는 객관성이 떠오를 것이다. 또는 꼭 진실을 밝혀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허환주 기자는 이 모든 통념을 부정한다. 그는 그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기자’라는 직업에 임하고 있다. 이번 꿈의 대화는 프레스리안 기자인 허환주 멘토와 기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이재훈(한국어문학부 4) 멘티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다.

멘티: 언론사 입사에 성공한 비결은 무엇인가요?

멘토: 요즘 언론사들은 스펙, 토익을 잘 보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은 갖춰야 하죠. 어느정도의 기본은 갖췄다는 가정 하에 지원자가 해당 언론사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집요함과 성실함이 충분한가, 사람 됨됨이는 어떤가 등을 따집니다. 모 일간지 신문사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그 신문사는 2009년에 회사사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신문사를 대거 빠져나가 회사자체가 위정거렸습니 다. 그 신문사는 평소 높은 스펙과 필기성적을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기 자체용을 했었는데 그게 소용이 없는 것임을 깨달은거죠. 엘리트들을 뽑으면 뭐합니까. 힘든 일이 생길 때 못 버티고 나가버리면 모든 것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때 이후로 그 신문사도 조건보다는 기자에게 필요한 끈기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문사에 자신만의 특화된 장점을 보여줘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대학 4년간의 경험들을 모아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각조각의 경험들이 하나의 원을 이뤄야 합니다. 저는 개인이 그 원을 얼마나 개성있게, 짜임새있게 이루냐에 따라 언론사 합격의 희비가 엇갈린다고 봅니다.

멘티: 그렇군요. 저도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했는데, 기자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취재는 무엇인가요?

멘토: 기억에 남는 취재가 정말 많 습니다. 그 중 가장 최근 사건은 쌍용 자동차 사건을 취재하러 갔을 때입니다. 당시 평택에 현장취재를 갔었습니다. 정문 앞의 천막에 기자들의 거 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들이 대체적으로 쌍용자동차 사 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기사를 쓰고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측 용역들이 우르르 나와 그 천막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작성하던 도중 급하게 노트북을 안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던 중 결국 용역원들과 마주 쳤는데 저에게 위협적으로 당시 누구 나며, 어느 언론사 기자냐고 다그쳤습 니다.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하여 상황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운 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기자 들이 갖고있던 카메라, 노트북을 용역 원들에게 뺏기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모 방송국의 기자는 머리에 쇠파이프 를 맞아 상당한 부상을 입기도 했구요. 위험했던 순간만큼 기억에 남습니 다.

멘티: 기자의 기본 자세 중 하나가 사 건에 대한 중립적인 자세라고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매체들을 보면 대부분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다. 두 개념이 상당히 대립적인데, 멘토 님은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 추나요?

멘토: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가치관과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 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이 세상 에 ‘중립’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할까 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그 세상을 투영하는 언론에는 더욱더 ‘중립’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존 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사가 중립적이라면 그 수 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중립적으 로 똑같이 풀어내는데 굳이 뭐하러 그 려게 많은 언론사와 기자가 있어야 하 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언론매체 구조 를 보면 각 언론마다 소위 좌파, 우파 라 불리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합니다. 같은 좌파성향의 언론이라고도 그 안에 서도 또 극좌파이나, 중도좌파이나에 따라 성격이 다시 갈립니다. 저마다 다 른 이러한 성향들이 바로 그 언론의 존 재의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멘티: 그렇다면 반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멘토: 물론 반론권은 언론이 꼭 존 중해줘야하는 권리입니다. 저 역시도 취재할 때 반론권은 반드시 보장합니 다. 다만, 모든 언론이 반론권을 보장하 되 저마다 다른 성격과 논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멘티: 기자로서 가져야하는 사명감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멘토: 저는 멘티 분에게 반대로 물 어보고 싶습니다. 기자로서 사명감이 꼭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기사 에 대한 책임감 등은 있어야 하지 않을 까요?) 기사에 대한 책임감은 사명감 이라기보다는 직업윤리입니다. 건축자 들이 현장에서 안전모와 작업복을 착 용해야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저 는 이 당연한 것들을 사명감이라고 표 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자도 하나 의 직업입니다. 저는 기자와 자영업자 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속되었던 언론사, 프레스리안 을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저는 그 시장 에서 과일을 파는 상인입니다. 독자들 에게 ‘기사’라는 과일을 파는데 그때 제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 몇가지 있 지요. 공급처를 속이지 말고, 썩은 과일 은 팔지 말 것. 혹시나 손님이 내가 판 과일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저는 이런 원칙들 을 기사 쓸 때마다 항상 생각하면서 씁 니다. 제가 쓴 기사를 읽고 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아무리 마음에 시달려도 불량한 기사는 쓰지 않도록 말합니다.

멘티: 마지막으로 충고해주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멘토: 프레스리안의 기자채용이 끝나 고 나면 탈락자들에게서 몇 통의 이메일이 옵니다.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묻 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우리회사 측도 그 지원자의 문제점을 간단하게나마 짚어줍니다. 그렇게 용기내어 묻는 지 원자들은 하나라도 더 얻어가는 것입 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점을 보완해서, 다음 번에 언론사에 지원할 때는 입사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지 요.

지금 멘티 분이 4학년인만큼 계속 언론사 취직을 준비와 지원을 병행하 세요. 만약에 언론사에 떨어진다면 내 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 아야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또다 시 준비하고 도전하다보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사진이야기



밤늦게까지 프로젝트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공학관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날따라 구름이 너무 신기하고 멋있어 찍었습니다. 내년 2월에 졸업예정인데, 정든 학교를 졸업하면 이런 멋진 풍경을 볼 수 없겠죠? 김명수(정통 4)

교직원을 만나다

한성인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고하시는 시설지원팀 한재도 주임을 만나다

본교에는 365일 우리가 보다 편리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 중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가장 밀접하게 도와주는 팀은 시설지원팀이다. 학교시설의 건축 및 보수와 실습실, 냉난방시설의 관리업 무 등 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학교유지를 위 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설지원팀은 진리관 1층에 위치하 고 있으며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설물 공사 및 유지 보수, 행사 지원 등의 시설관리가 주 업무이다. 이번에 만나본 교직원은 시설지원 팀의 한재도 주임이다. 한재도 주임은 시설지원팀에서 기계설비와 냉난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겨 울이 다가온 요즘 가장 바쁜 나날을 보 내고 있다. 그는 중앙관제실에서 냉난 방을 공급, 통제하거나 시설물의 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급수시설이나 배수시설, 화장실과 관련된 위생시설 에 대한 업무와 환기 장치에 대한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재도 주임은 1997년부터 17년 동 안 본교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는 “시 설지원팀은 주기적으로 계획에 따라 미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냉난방과 관련된 업무는 계절보다 앞서 공급을 준비하기도 한다”며 “이렇듯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일을 처 리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근 무 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 “무엇보다 시설을 보수한 후에 학생들 이 만족해 할 때가 가장 보람 있다”고 말했다. 한재도 주임은 재직동안 있었던 여 러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어느 실기 입시기간 이었다. 다음날 있을 실기시 험을 위해 실기고사장을 밤새 설치했 으다. 작업이 끝나고 자정 넘어 난방시 설을 재확인 하던 중 고장이 발생했다. 몇 시간 동안 수리에 매달렸지만 고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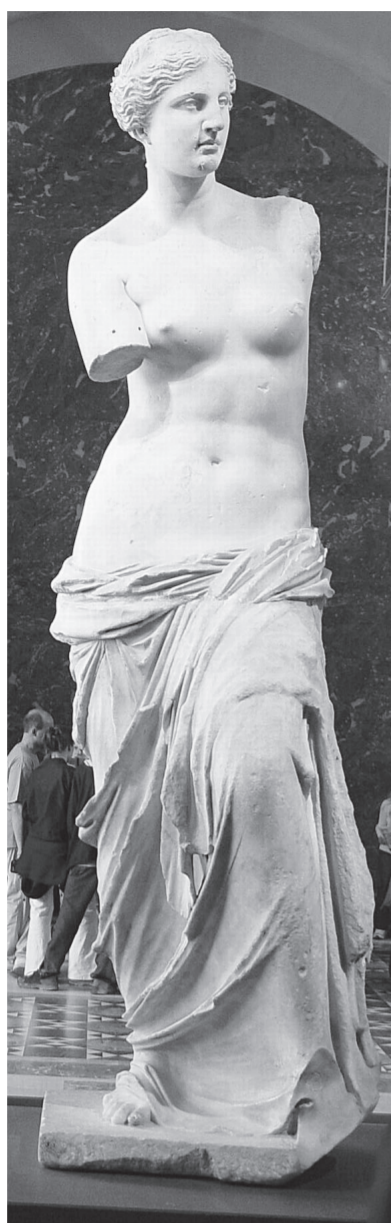
지지 않아 대체 난방시 설을 설치했다. 그 런데 다음날 아침 난방 시설이 재가동되었 던 일이 있 었다. 고생 은 했지만 무사히 실기 시험이 진행 되어 다행이 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그는 “언제는 명절기간 고향에 가있는 동안 폭우로 학교가 잠겨 휴가도중 보수를 위해 돌 아온 적도 있다”며 회상했다. 그가 들 려준 에피소드에서 학교를 위해 힘쓰 는 그의 노력이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한재도 주임은 학생들 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학생들이 절약을 위해 몇 가지 노력을 해주었 으면 한다. 계절에 관련 없는 냉난방의 요구는 자제하고, 퇴실할 때 불을 꺼주

는 등의 작은 실천을 해주길 바란다” 고 부탁했다. 시설지원팀원들은 혹시 모를 학교 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365일 24시간 휴대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가 보다 편리한 학교생활 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힘쓰는 시설지원 팀원들의 노력이 당연히 여기기보단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 다.

윤지은 기자 yoonjioon@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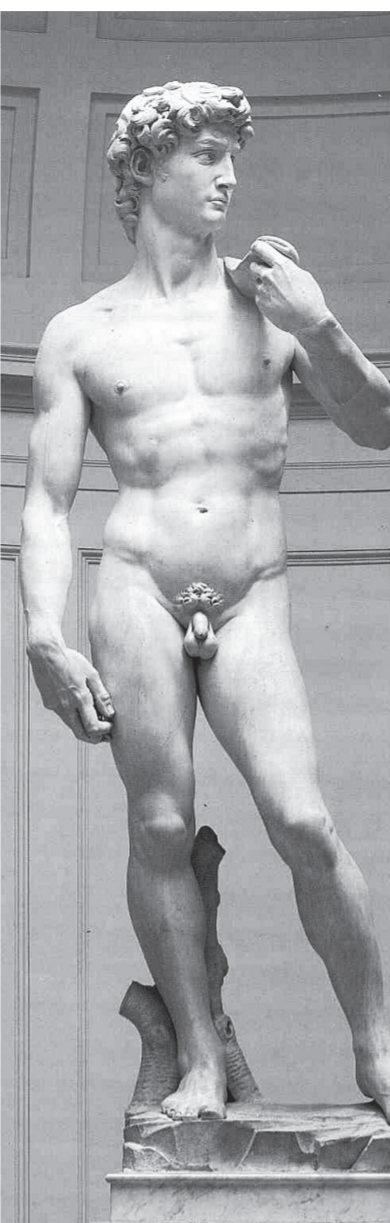
이분법적 성별을 넘어서 '제3의 성(性)' 인정



▲ 비너스상의 모습



▲ 헤르마프로디토스상의 모습



▲ 다비드상 모습

최근에 독일은 이른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첫 유럽 국가가 됐다. 즉 출생신고서에 아이의 성별을 공란을 두어 아이가 나중에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현재 성정체성의 혼란

을 호소하는 사람이 약 8만 명에 달한다고 독일윤리위원회가 추산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인권문제를 다루는 독일 잡지인 '팍RZ'는 남성(M)과 여성(F)외에 제 3의 성을 의미하는 X

를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렇다면 제3의 성은 무엇일까.

제3의 성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 분류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전환자, 동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등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유전자상 남성이지만 여성의 신체 특성을 가진 '가성' 반응양도 해당이 될 수 있으며 그 반대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3의 성을 독일이 인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성정체성에 대한 관용적 인식이다. 1960년, '제2의 물결' 이후 사회에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대두되었다. 여성들과 더불어 성소수자들도 하나의 인권을 가진 주체로 보기 시작했다. 독일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는 제1차 대전 이후에도 존재했다. 독일의 베를린은 동성애자들에게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였다. 시나 여기저기에 동성애자의 하위문화가 형성되어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모여들었다.

두 번째는 성소수자 핍박에 대한 과거의 반성이다. 19세기 유럽 중심으로 제3의 성은 사회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변태성욕자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투옥된 것이다. 나치 집권 후 동성애자들은 핍박 받기 시작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특히 소년들이 모여 있는 히틀러 유겐트(독일 나치당이 만든 청소년 조직)는 각별한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수용소로 끌려간 동성애자들은 모욕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학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독일의 억압적 행동의 반성으로 제3의 성이 가능하게 됐다.

성소수자들에게 해당되는 제3의 성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10%에 해당된다. 크게 성소수자들 중 70%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성정체성을 수용하지만, 나머지 30%정도는 사회적 관계를 이유로 동성애를 추구하기도 한다. 김귀옥(교양교직학부) 교수는 "현

인류의 가족관계는 이성애 중심이고, 아직도 가부장적인 관계가 지배적이다. 여기서 오는 남녀 불평등이 여자를 약자의 위치에 둘 때, 이들은 제3의 성을 추구함으로써 남녀불평등을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성소수자들은 성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분법적 성별을 추구하는 사회적 잣대가 이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삶은 사회적 관계와 배제할 수 없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소수자에 대해 자유롭게 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는 동성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관용 또한 미흡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 개인이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정체성이 여성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사회적 법적 제도에 따라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고 여성의 배우자와 결혼할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는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성소수자들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성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서구의 추세이다. 따라서 성소수자들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제3의 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가성반응양 : 포유동물에서 볼 수 있는 간성의 일종으로 외견상의 성과 생식기의 성이 불일치 한것

박성희 기자 pshy13@hansung.ac.kr

다락방 책꽂이

세계 최고 석학 172인의 미래 전망 리포트



『더 퓨처』 / 예문/수현, 허빈

『더 퓨처』는 세계 경제, 사회, 과학기술, 환경, 우주, 교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가올 미래를 예측한 보고서이다. 수현과 허빈이 저자이며 앨빈 토플러 등 172인의 세계 석학들이 미래를 예측했다. 미국 항공우주국, 포브스 잡지, 세계보건기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에 발간된 이 책은 2012년부터 2050년까지 미래를 통시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방면의 주제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생화학 무기의 발달로 인한 바이오테러리즘이다. 실제 율해, 시리아에서는 생화학무기 사용으로 1300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를 보면 미래의 변화 예측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근접하게 다가왔는지를 파악 할 수 있다. 슈퍼바이러스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최근에는 사스, 슈퍼독감 등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미래를 향한 안전 불감증이나 안전 불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다가올 현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IT한 소식

전기차에서 바라본 미래예측

개인, 조직 관계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존재

사실 확인은 되지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개인용 컴퓨터, 그러니까 PC에 640KB 용량의 메모리만 충분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언뜻 실감이 나지 않는 용량인데 1MB가 1024KB이니 요즘 흔하디흔한 USB 메모리보다 못한 크기인 셈이다. 1~2만원만 있어도 32GB 플래시 메모리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빌 게이츠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망언을 내뱉은 셈이다.

이처럼 미래를 예측한다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다. 매년 수많은 경제연구소와 시장조사업체, 분석가들이 각양각색의 보고서를 내놓고 있지만 적중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마치 공부해 할 생각이 없는데 참고서부터 마련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

당사자에게는 아찔하겠지만 LG전지도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으로 잘 알려진 맥킨지 사건의 대표적이다. LG전자는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기 직전인 200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잘 나가는' 회사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LG전자는 맥킨지의 조언을 바탕으로 기술보다는 마케팅에 역점을 뒀고 곧바로 후폭풍에 시달렸다.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난 것은 물론 이유야 복잡하겠지만 피쳐폰 시대의 영광이 스마트폰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과착으로 꼽힌다. 요즘 잘 나간다는 전기차도 같은 위



험이 도사리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전기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았다. 제너럴모터스(GM)는 17년 전에 전기를 시중에서 판매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와서 전기가 다시 각광받는 이유는 뭘까? 표면적으로는 인프라를 꼽는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과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충전소와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이기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음모론처럼 석유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이 일부러 전기차 대중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근본적인 이유는 소비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혹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20~30분 정도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충전소가 생기고 있지만 이 또한 전통적인 내연기관 엔진의 자동차와 비교하면 현명한 수준이다. 길어야 5분이면 주유가 끝나는 주유소를 두고 왜 비싸고 불편한 전기를 써야 할까.

현재 상태라면 전기차는 선진국의 전유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유롭게 정원에 마련된 주차장에 전기가 주차하고 다음날 충전이 이뤄져 있는 그런 곳 말이다. 옹기종기 아파트 주차장이 몰려있는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하면 아직도 전기차는 조금 더 시

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10년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파지고 보면 스마트폰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20년 전부터 마련됐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제품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향후 10년 이내에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칠 수 있는 아이템은 과거 누군가 생각한 아이디어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

성장 기회는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한다. 스마트폰이 보급될 때 케이스, 보호필름, 케이스 등 액세서리 시장이 급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가 뜨면 전자파 차단 필름, 충전 속도 개선용 어댑터, 규격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 등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될 것이다. 구글글라스, 갤럭시S4 등과 같은 웨어러블 컴퓨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별한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수 없이 되새김질 되고 있는 아이템에 불과하다.

구글이 망하면 100개의 벤처가 생기고 국내 대기업이 망하면 100개의 치킨집이 만들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냥 웃고 넘기지는 말고 듣기에 다소 씁쓸한 이야기다. 핀란드의 자존심이자 상징인 노키아가 무너진 이후 다양한 벤처가 등장해 국가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말이 길어졌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모두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꿈과 희망, 장애 등을 논하기 이전에 왜 이런 불안감이 생겼는지부터 차근차근 곱씹어 볼 시간을 가져볼 것을 권한다.

(디지털데일리) 이수환 기자 shulee@dailly.co.kr

食道樂

'식도락'은 우리에게 생소한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 우리가 음식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된 코너입니다.

매운맛과 사랑에 빠진 한식

한식이 매운맛에 푹 빠졌다. 김치찌개에도 고춧가루를 넣고 된장찌개에도 고춧가루를 넣는다. 고춧가루 없으면 청양고추라도 넣어서 칼칼한 매운맛이 있어야 맛있는 찌개 완성이다.

심지어 족발도 갈비도 돈까스도 매운맛에 파묻혀 도대체 고기 맛을 음미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우리는 지금 맵게, 더 맵게를 외치지만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 예전부터 이렇게 매웠던 것은 아니다.

임진왜란때 고추가 들어오기 이전 우리나라 음식들은 오히려 담백하고 자극이 적었던 것이 특징. 그러다가 점차 고추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면서 고추가 들어간 매운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중독(?)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제 한식의 매운맛 전쟁은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는 중이다. 그냥 평범한 매운맛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양념치킨도 그냥 매운맛이 아니라 '불케이노'나 '핫쇼킹', '엽기' 정도는 불어줘야 매운맛 마니아들이 술렁인다. 청양고추로 만족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청양고추보다 20배 매운 허베네로 고추를 사용했다는 라면까지 등장했다. 매운맛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도전하라는 도발적인 카피로 매운맛에 중독된 소비자의 식욕을 자극한다. 이정도면 과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식이 매운맛에 점점 당했다' 할 만하다.

매운맛이 중독성을 갖는 이유는

매운맛이 일종의 마약처럼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매운맛은 통각을 자극하는데, 이때 우리 몸에서는 일종의 비사타페라라고 불리는 매운맛을 좋게 만드는 엔돌핀을 분비하게 된다.

때문에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는 것. 문제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즉 더 매운맛을 원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매운맛이 건강에 아무런 문제도 야기하지 않는다면 매운맛을 마음껏 즐겨도 무방하리라. 그러나 매운맛은 다양한 장점에 함께 일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섭취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때 매운 음식은 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다가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을 헬리코박테리 파이로리균에 감염된 동물에게 소량 투여했을 때 염증반응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보고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또한 사람의 경우 평소 매운맛을 즐겨먹는 사람들에게서 소화성질환 발생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어 매운맛이 위에 치명적이라는 상식을 뒤집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방차원의 효과이고 이미 발병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 만약 매운 음식을 먹은 후 속 쓰림이 느껴진다면 절대 매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고추 다이어트는 캡사이신이 체지방의 분해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다. 물론 고추 자체에 열량이 매우 낮은 채소류에 속하기 때문에 열량제한의 효과도 있고, 또한 고추에 풍부한 식이섬유소가 만복감을 주므로 식사량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매운맛은 식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캡사이신의 체지방 분해효과는 의미가 없다.

아무리 매운맛을 사랑해도 잠시 참아야 할 때가 있다. 수유부가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매운맛 성분이 모유중에 소량 함유될 수 있는데, 신생아에게는 소량이라도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유하는 동안에는 매운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치질로 인해 항문주위에 상처가 있을 경우 매운 음식은 상처부위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매운맛 자체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 만약 소량의 캡사이신을 먹어도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면 매운맛 알러지를 의심해봐야 한다.

최근의 매운맛 열풍, 조금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뭉치지 지나치면 독이다.

이미숙 (이미숙의 건강한 식탁)

인디를 듣다

12월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익숙한 것에 새로운 느낌을 느끼고 낯선 것에 친근함을 느낀다. 매년 이맘때쯤 다시 듣게 되는 캐롤처럼 말이다. 그리고 처음 듣는 인디음악은 낯설지만 친근하다. 노래의 가사는 마치 내 연애사, 일상사 같다.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인디가수는 단 몇 명에 불과하다. 실력은 그 기준이 아니며 인디의 매력은 직접 곡을 만들어 연주하니 가수의 개성에 따라 무궁무진하다. 이에 기자는 매력적인 인디밴드 '만주 한 봉지'를 만나 보았다. 더불어, 추운 날씨에 핑퐁 언 몸과 마음을 녹여줄 인디 공연 장소도 함께 만나보자.



즉석! 인디 밴드, 만주 한 봉지!

“만주 한 봉지”는 여성 보컬 ‘만주(예명)’와 건반 담당 ‘한준희’, 프로듀싱 ‘최용수’, 총 3명으로 이루어진 인디밴드이다. 이 밴드의 노래로 ‘테이크아웃’, ‘봄이구나 한순간’, ‘돈으로 주세요’ 등이 있다.

기자: 왜 이름이 만주 한 봉지인가.

만주: 어렸을 적부터 얼굴이 빵처럼 둥그래서 ‘탄빵’이 별명이었다. 개인 사정으로 예명을 준비하는데 빵을 생각하다가 ‘쥬’발음도 귀엽고 해서 ‘만쥬’로 예명을 짓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디 페스티벌에 초청받았는데, 밴드 이름이 없던 상태라 급하게 만주 한 봉지라고 짓게 되었다. 다른 밴드와 달리 이름을 먼저 짓고 거꾸로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의미라 하면 만주 한 봉지로 서민들에게 따뜻함을 안겨 준다고 할 수 있겠다.

기자: 만주 한 봉지의 음악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만주: ‘리버슬’이라 할 수 있다. 리얼 바리타이티 소울 어쿠스틱 음악이란 뜻이다. 인디의 어쿠스틱 노래는 주로 달달하고 힐링하는 느낌인데, 우리는 현실을 노래로 표현하면서 보다 소울풀하

고 어쿠스틱한 음악을 한다고 할까.

기자: 어떻게 노래를 만드는가.

최용수: 저녁 집 가는 길에 마주치는 고양이와 보고 노래를 쓰기도 했고, 만주를 보고, 팬의 사연을 듣고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만주: 주로 노래를 창조하는 것부터 유행에 이르는 핵심은 용수오빠가 하고, 편곡은 준희오빠가 맡는다. 물론 내가 작곡한 노래도 있다. 곡마다 다른 역할을 맡기도 한다.

기자: 팬의 사연을 듣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최용수: 새벽에 갑자기 팬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애상담을 했다. 흥미로운 이야기에 곡으로 써봤는데 우리 밴드 음악 중에 가장 반응 좋은 노래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테이크 아웃’이란 노래다.

기자: 뮤직비디오가 독특하다. 인디밴드 중 뮤직비디오가 있는 경우가 적은데,

한준희: 주어진 조건 안에서 우리 밴드가 좋아하는 분들, 좋아해주실 분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뮤직

비디오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근성의 결과물이다. 우리 인디밴드의 기획사 실장이 태블릿 PC로 일일이 직접 그렸다. 정말 애썼다.

기자: 만주 한 봉지의 목표?

최용수: 음악만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후에 올림피아 경주장에서 공연을 했으면 한다(웃음).

만주: 올림피아 경주장(웃음). 나는 큰 공연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연을 가까이 찾아오는 정도로 밴드가 성장했으면 한다.

한준희: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 외국 페스티벌에도 초대받아서 공연하러 가고 싶다.

기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만주: 인디 음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굳이 만주 한 봉지가 아니더라도. 대형기획사의 가수처럼 대중에게 노출될 기회가 적을 뿐이지 한 발짝만 조금 더 다가서면 다양한 실력과 뮤지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다.

오그림 기자 1233075@hansung.ac.kr

인디공연 어디서 볼 수 있는데?

1. 카페 언플러그드

4층부터 5층, 6층 옥상까지 어쿠스틱한 꾸미지 않은 인디음악을 즐기기에 멋진 카페가 있다. 4층은 악기연주를 하며 음료를 마실 수 있고, 5층은 일정에 따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6층 옥상은 날씨 좋은 날 옥상피티나 공연이 열린다.

강진형(카페 언플러그드) 공연기획자는 “뮤지션이 아니더라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악기 연주도 하고 차도 마시며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며 “무대가 가까워 뮤지션들의 음악을 내 옆에서 호흡하는 느낌으로 친근하게

들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디의 매력에 대해 “공연이 끝나고 뮤지션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매년 12월에 카페언플러그드에서는 자선바자회가 열린다. 공연 후에 뮤지션들의 애장품을 100원부터 경매한다. 강진형 공연기획자는 “24일 저녁에 열릴 예정이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그때 수입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쓰인다는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목, 금, 토, 일요일에 인디공연이 진행되며 미리 카페 언플러그드 페이스북이나 카페에 들어가 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8-65번지 원빌딩 4층



2. 감성달빛

따뜻하고 달달한 분위기의 인디음악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평소에는 아끼지기한 카페였다가 매주 토요일 밤이면 풍부한 리듬이 흐르는 인디공연장이 된다.

음악과 사람을 좋아하는 임진규(감성달빛) 사장은 “공연이 끝나고 뮤지션과 관객이 함께하는 뒤편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되도록 바쁘지 않으면 모두 자리해 치킨이나 맥주를 먹으며 서로의 생각을 듣는다”며 “영상, 사진으로 추억거리를 남긴다”고 감성달

빛의 공연만의 매력을 이야기했다.

12월은 감성달빛 개업 1주년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그는 “특별한 것은 없고 24일에 친한 인디밴드인 끈자놀이



코브라 편치의 공연을 계획 중이다. 그리고 밤새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기도 하다. 그는 “특별한 것은 없고 24일에 친한 인디밴드인 끈자놀이

임 사장은 “인디음악에 정말 좋은 노래와 가수들이 많다. 음악적 취향이나 분위기가 모든 관객을 만족 시킬 수 없지만 충분히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며 “인디공연도 보고 뮤지션, 사람들하고 소통하러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성달빛 페이스북과 카페를 통해 공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소: 서울 성북구 인촌로7길 39

3. 오퍼르

‘BECHSTEIN’그랜드 피아노와 공연에 필요한 장비들이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어 오퍼르만의 사운드로 인디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매일 밤 다양한 장르와 색다른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특별 기획 공연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인 취향에 따라 찾아가기도 좋다.

박성자 (오퍼르)매니저는 인디음악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 “작은 공간에서 뮤지션과 직접적으로 호흡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라이브연주가 주는 사운드의 감동 또한 매력적이다”며 많은 사람들이 인디 공연을 찾아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오퍼르는 12월을 맞아 특별한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24일에 <오퍼르그랜드피아노DAY>, 25일에 <이아림with 시와> 조인트 콘서트, 28일에 <오퍼르해피콘서트>, 12월 마지막 날에 <커피향기IN오퍼르>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 매일 진행되는 공연의 정보는 오퍼르 페이스북과 카페를 통해 공지된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7-36 36가빌딩 지하 1층



모피를 입은 당신, 정말 따뜻하신가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길거리에 모피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모피코트를 입은 사람들을 마주칠 때 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저 모피코트 한 벌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사용됐을까.”

미국동물보호단체 IDA(In Defense of Animals)가 모피코트 1벌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동물 수의 대략적인 통계를 발표한바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토끼코트 1벌에 약 30마리, 밍크코트 1벌에 약 55마리, 진철라코트 1벌을 만드는 데 약 100마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가 구입하는 모피코트 한 벌에는 이렇듯 많은 동물들이 사용된다. 모피원단으로 이용되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들의 생활환경 또한 열악하다. 세계적 규모의 동물권단체인 PETA(People for the Ethical



▲모피 농장 안 라쿤 /출처: 페타 아시아



▲중국 모피 농장 너구리/출처: animals voice

Treatment of Animals)는 “유통되는 모피의 85% 가량이 공장형식의 모피농장에서 키워진 동물들의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모피농장의 동물들은 라면상자정도 크기의 공간에서 사육된다. 이렇게 좁은 우리에 갇혀 사육되어야 보다 부드러운 모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좁은 우리에 갇힌 동물은 혹독한 계절의 변화를 감당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 주사를 주입하여 사육이 저해되고 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동면을 취하지 못한 동물들은 막대한 스트레스를



▲동물자유연대에서 제작한 모피 반대 포스터

받아 자신의 몸을 절단하는 등의 피해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육된 동물들은 모피의 손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안된 도살방법에 의해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죽음을 맞이한다. 전기충격과 가스도살이 대표적인데 동물의 입과 항문에 전기가 통하는 집게를 물려 심장마비를 유발하거나 가스에 중독시켜 도살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들도 동물들

은 고통을 배로 느끼게 된다. 전기, 가스충격 후에도 피해동물이 죽지 않고 깨어나는 경우도 많다.

2004년 SAP(Swiss Animal Protection)에 의해 언론에 모피제작과정의 끔찍한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 영상은 너구리모피를 생산하는 중국의 한 모피농장에서 촬영된 것이다. 너구리 농장원에 의해 폐대 기척지고 짓밟히는 장면과 도끼로 발목을 찍어낸 후 살아있는 너구리의 가슴을 찢는 장면이 담겨 있다. 가족과 털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며 도살비용까지 아끼기 위해서라

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당시 현장에 잠입했던 SAP요원은 “가족이 벗겨진 후 숨이 붙은 채로 피투성인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동물들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모피 생산과정의 동물에 대한 비인도성과 생태계 파괴를 문제로 여러 국가에서 모피 농장의 운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12년 여우, 진철라, 밍크 농장의 운영을 금지하는 3가지 법안을 통과 시켰다. 또한 스위스와 이탈리아도 동물들의

숨

성에 맞게 설계된 시설을 갖추게 하는 등의 엄격한 법 규정으로 사실상 모피동물의 사육을 금지했다. 이외에도 영국,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또한 모피농장을 법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자유연대 정책기획관 한송아 활동가는 “까다로운 동물보호법 규제를 피하고 생산원가절감을 위해 모피업체들이 생산기지를 미국과 유럽등지에서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모피업체들은 큰 이익을 보고 있지만 동물권리와 동물복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에서의 모피산업 발전은 동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역시 국내에 모피동물 사육농장이 없기에 모피 제품을 수입하거나 모피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2012년 모피류 수입동향에 대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모피류 수입은 2008년~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감소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국내에 일고 있는 모피류 수입증가 현상에 대해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고취와 사치성 모피 수요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친환경적인 인조모피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생모피의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간, 정부, 기업의 협의체 구성과 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지은 기자 yoonjoon@hansung.ac.kr

응답하라 드라마어



문화읽어주는 기자 오그림

기자는 TV드라마를 잘 챙겨보는 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기자가 챙겨보는 드라마가 생겼다. ‘응답하라 1994’란 케이블 드라마이다. 응답하라1994는 작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응답하라1997’의 바통을 이어받아 현재 여느 지상파 드라마의 인기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내용을 간추려 이야기하자면 여주인공의 현재(2012년, 2013년)의 배우자, 즉 과거인 1997년, 1994년에서 미래(2012년, 2013년)의 배우자를 시청자들과 맞추어가는 이야기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시청자들과만’ 부분과 ‘맞추어가는’이란 부분이다. 일 반적인 드라마는 작가가 만든 극적인 요소가 풍부한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인데, 이 드라마는 통보가 아닌 제작진과 시청자의 소통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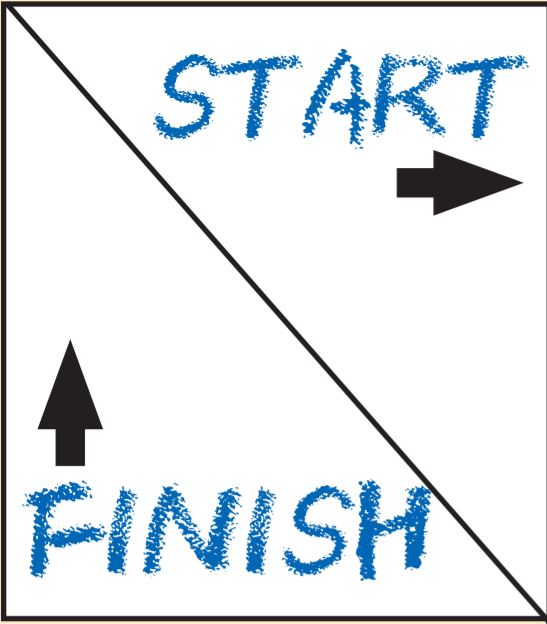
현재 방영중인 응답하라1994를 기준으로 다시 차근차근히 이야기해보자. 드라마의 배경은 두 시대이다. 1994년 주인공들의 대학시절과 2013년 여자주인공인 성나정 부부의 집들이 날이다. 우선 1994년의 배경에서는 경상남도 마산 출신인 성나정 가족은 서울로 상경하여 신촌하숙을 운영한다. 그리고 신촌 하숙에서 친오빠 같은 ‘쓰레기’와 하숙하는 학교 동기 ‘빙그레’, ‘삼천포’, ‘칠봉이’, ‘조윤진’과 성나정이 함께 대학생활을 한다. 두 번째 배경인 2013년은 성나정 부부의 새집에서 신촌하숙에서 함께 대학생활

을 보낸 쓰레기와 동기들이 모여 성나정 부부의 결혼식 비디오를 본다. 이때 결혼식 비디오에서 남편의 모습은 잘 비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야기는 2013년과 1994년을 오가며 전개된다.

“성나정의 남편이 누구인가?” 응답하라1994의 제작진이 시청자들에게 큰 퀴즈를 던져준 것이다. 매 회가 거듭할 수록 제작진은 이 퀴즈에 대한 힌트를 조금씩 내어준다. 하지만 결정적인 성나정의 미래 남편감을 록 집어내기에 부족하다. 덧붙이자면 “시청자들의 반응에 따라 성나정의 미래남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제작진의 말이다.

앞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던 ‘시청자들과’와 ‘맞추어가는’을 응답하라의 인기 비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높은 구두를 신고 등교하는 고등학생들, 주변 인물들이 화귀병으로 죽어가는 기존의 비현실적 드라마 설정과 달리 사회와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노력이 있는 드라마니 얼마나 성의 있는가.

응답하라 제작진은 이전에 KBS ‘1박2일’ 제작에 참여한 바 있다.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사회이슈와 시청자 의견은 영향력이 크다. 응답하라 제작진은 이를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자연스럽게 반영시킨 것이다. 이 시도가 응답하라 시리즈에 연속적으로 성공을 안겨주었으니, 앞으로 드라마에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동적인 스토리를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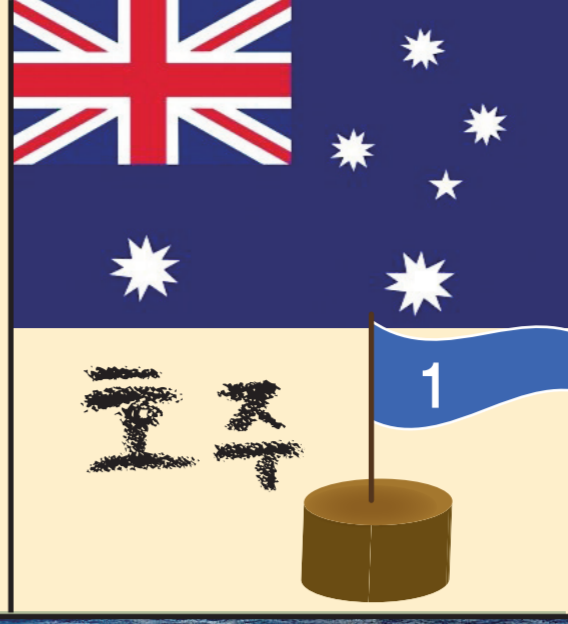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준비과정

- 정해져 있는 준비과정은 없지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은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1. 워킹홀리데이의 목표 설정 및 버킷리스트 (Bucket List) 작성
 2. 생활, 면접, 전화 등 실용회화 위주의 현지언어 공부
 3. 체류 예정 도시의 생활정보 및 안전정보를 반드시 꼼꼼히 숙지할 것
 4. 해당 국가(지역)의 언어 어려서, 업종 별로 마련하는 것이 좋음
 5. 약 3개월 정도의 충분한 초기 정착비용 마련

국가별 워홀비자 기간

국가 및 지역	여행기간 제한	취업기간 제한
호주	4개월	12개월 (한 직장에서 6개월)
캐나다	6개월	없음
일본	없음	없음
독일	없음	없음

워홀비자는 학생비자, 취업비자와 달리 취업 및 여행기간에 제한이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다. 현재 높은 최저임금과 쿼터 무제한으로 우리나라 워홀러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48,496명의 대학생 워홀러 중 34,234명이 호주를 방문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호주는 비자 신청가능 인원에 있어 제한이 없다.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상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수수료는 AU\$420(한화 약 40만원)이며 비자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약 2-4주이다.

독일 워홀 비자

주한 독일 대사관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특별한 기간 없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가 처리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린다. 비자가 발행되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니 주의할 것. 비자신청수수료는 60 유로이다.
구비서류 :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비자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1매, 2,000유로 이상 입금된 본인 명의의 통장잔고 증명서(한화 약 300만원), 체류기간 약 1년간의 보험계약서 등.
매력 :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저렴한 물가. 다양한 주변 국가를 여행하기 용이.
참고 : 독일어와 영어 구사 능력은 필수적. 119대신 112, 112대신 110.

독일 워홀 생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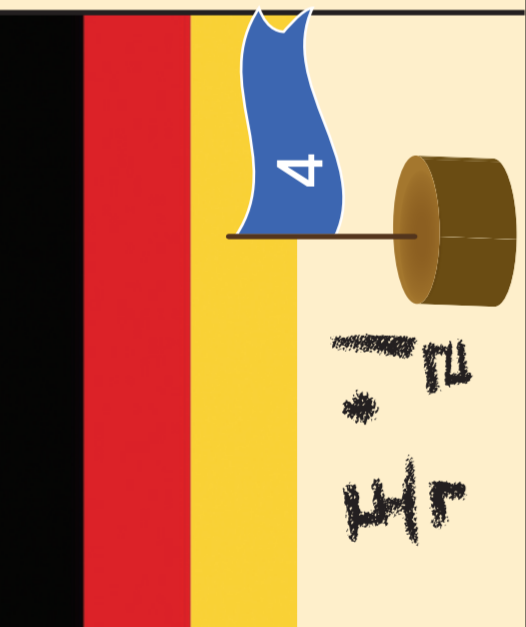
1. 팁 문화: 많은 독일 식당에서 음식가격에 팁을 포함해 계산한다. 음식가격의 약 10%정도이다.
2. 직접 여는 지하철 문: 독일 지하철은 타거나 내릴 때 직접 버튼을 누르거나 문을 당겨서 열어야 한다.
3. 8시 또는 9시: 독일 대부분의 가게는 8시, 시내의 스타벅스도 9시면 문을 닫는다. 이쯤이면 일반 독일 가정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니 조용히 해야 한다.



모두의 워홀

〈편집자주〉 어느덧 12월, 대학생들은 종강을 앞두고 있다. 전장같은 기말고사가 끝나면 겨울방학이라는 풀같은 휴식시간이 찾아온다. 여유롭지만 잘못 활용하면 임여가 되기 쉬운 대학생의 방학. 당신의 이번 겨울방학 계획은 무엇인가?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워킹홀리데이'를 추천한다. 이번 기획에서는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쉬운 준비과정과 비자발급과정,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4개국에 대한 정보를 다루었다.

담당 기자 오그림
김근영
윤지은
박상희



워킹홀리데이 TI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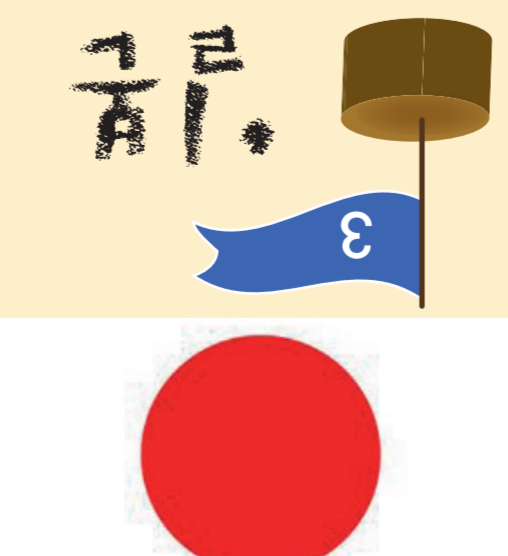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현재 16개 국가(지역)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지역)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발효 예정), 이스라엘(발효 예정)이 있다. 이 외에도 영국과는 청년교류제도(YMS)를 체결하고 있다.
2012년도 자료에 의거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국가는 주로 영어권 국가이며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순으로 선택 비율이 높다. 또한 그중 호주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워홀 비자

워홀비자 : 신청기간은 연 4회(1월, 4월, 7월, 10월)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만 18세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이다. 신청방법은 주한일본대사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중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기간은 1년이며 연장이나 재신청은 안된다. 비자신청비용은 없다.
1 단계: 직접 주한일본공관으로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2 단계: 약 한 달 뒤에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며 통지서(엽서)가 발송된다.

일본 워홀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신청기간 최종일은 신청자가 많아 대단히 혼잡하므로, 가능한 최종일은 피해서 신청해야 한다. 합격하여 12월에 출국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4분기에는 합격해야 여유를 둘 수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일본은 보험이 필수사항이 아니나, 보험없이 외국인 신분으로 병원을 이용하면 엄청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워홀비자를 소지하고 일본에 입국하면 여학연수 아르바이트 그리고 여행 등을 본인의 계획에 맞게 할 수가 있으나 유학업 등의 취업은 할 수 없다.



호주의 특징

호주는 광대한 자연환경을 벗삼아 여행할 곳이 많다. 리조트 등이 잘 발달 돼있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외식값이 많이 비싸며 술을 파는 곳이 지정되어있다. 리퀴샴, 보틀샴이라고 불리는 술 판매가 허가된 곳에서만 술을 판매한다. 자전거를 탈 때 꼭 헬멧을 착용해야하며, 보행자 신호등에 부착돼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다.
주의할 점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와 다르게 국가별로 취업 및 여행기간에 제한이 있다. 호주에서는 12개월 동안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번을 직장을 옮겨야 한다. 여학연수도 12개월중 4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TIP 1

우리나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로 선진국을 선호한다. 이런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초기에 정착을 잘 한다면 플터윈(하루 8시간) 근무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경우, 밤 또는 새벽 시간대에 홀로 외출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거리가 밝은 우리나라에서처럼 음식과 외출을 하곤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캐나다 워홀 비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에는 상/하반기 각각 2,000명씩을 모집한다. 신청방법으로는 우선 선착순으로 온라인 지원번호 받아야 한다. 그 다음 구비서류를 준비해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비자신청비용은 2013년 상반기 기준 163,500원(\$150)이다.
주요 특징
①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② 입국 유효기간 : 비자승인레터 상에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입국
③ 체류기간 :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여학연수 : 최대 6개월 가능
④ 취업조건 : 최대 12개월 가능.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취업기회

캐나다 워홀 주의할 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SIN카드(사회보장카드)가 필요하다. SIN카드를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필요한 신분증이다.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피고용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구직활동 전 미리 SIN카드를 받아둬야 한다.
신청방법
① 비자를 가지고 가까운 Service Canada Center 사무실을 방문하면 신청 후 약 5일 이내에 우편으로 카드가 발송된다.
② 캐나다 입국 시 공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할 수도 있다. 신청 후 약 3-4주 후에 SIN카드가 배송된다.

